

AUTUMN

WONIKIN

WONIK MAGAZINE
2019 VOL. 59

소통 - 상호 이해°
서로 표현하라





원근사 9층 전시 전경

WONIK bldg. 9F

십장생 No.10 (거북이, 불로초, 바위, 물, 산, 구름, 학, 해, 달, 소나무)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No.10 (turtle, elixir plant,
 rock, water, mountain, cloud, crane, sun, moon, pine tree)
 C-Print, 100×150cm, 2011
 유현미

YOO HYUN MI

낮선 일상, 초현실 시각적 유희로 초대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판타지와 상상력을 자극해
 또 다른 감각을 열어준다.



上
 십장생 No.1
 C-print
 148×157cm
 2011

下
 십장생 No.5
 C-print
 100×146cm
 2011

1964 서울 생
 198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1992 뉴욕대학 (NYU), 창작미술 전공, 대학원 졸업
 1994 뉴욕대학 (NYU), 창작미술 전공, A.C.P 졸업 (후석사)

“그림 인가? 사진 위에 색칠을 한 건가?” “색칠한 그림을 사진으로 담아 낸 거잖아.” 유현미의 십장생 작품을 관람하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서 엿볼 수 있듯, 그의 작업 과정은 우선 영감을 스케치로 그린 후 그 장면을 조각과 설치로 ‘현실화’ 한다. 설치 과정 중간에 사진을 찍으며 위치를 확인한다. 그 다음 설치된 조각 뿐 아니라 벽과 천장, 마룻바닥에까지 꼼꼼하게 색을 칠한다. 이 채색 과정을 통해 3차원의 사물은 2차원 평면에 납작 붙은 듯 보여 진다.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감도는 것은 이러한 작업 때문이다. 그런 다음 사진을 찍어 완성작을 선별한다. 사진

은 전혀 가공하지 않는다. 조각을 전공한 유현미는 디자인·회화·사진 등에 두루 관심을 가져오다 1991년 NYU(뉴욕대학교) 졸업전시를 통해 ‘물체와 사진의 결합’을 시도한 이 같은 기법의 시리즈를 처음 선보였다. “감상자들이 종종 논쟁을 벌인다고 하더군요. 분명하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입체인 동시에 평면이고, 회화이며 사진인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만합니다. 색과 붓질이 살아있는 회화이면서 조각적으로 공간을 느끼고 또 사진적 다큐멘터리를 동시에 보여주려는 것이죠. 현대미술을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가장 원론적인 기법들 안에

서 오히려 새로움을 찾습니다. 현실일까 상상일까 알듯 말듯한 그런 묘한 끌림이 있다면 감상은 충분합니다.” “동서양 모두 전통적인 미술의 주제는 복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작가는 설명한다. “행운을 상징하는 요소들은 ‘눈을 즐겁게 해 마음을 정확하고 복을 부른다’고 해 패턴화됐고 문화권 안에서 공감대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기복(祈福)을 주제로 한 유현미의 십장생 시리즈에서 붉은 지구仪는 태양, 노란 지구仪는 달을 상징하고 물을 뜻하는 생수병과 종이학 등이 현대적 분위기의 새로운 십장생도를 구성한다.



WONIKIN

Autumn 2019 v. 59

소통 - 상호 이해
서로 표현하라
Communication

사보기자단

- 원익홀딩스 소병오
- 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최예란
- 원익머트리얼즈 조수영
- 원익큐엔씨 이민희
- 원익 이기복
- 원익큐브 정은하
- 씨엠에스랩 박지현
- 위닉스 안희태
- 원익로보틱스 서상원
- 원익엘앤디 최세현
- 하늘물빛정원 이찬우
- 원익투자파트너스 최선욱

사보담당자

이호철 / 강무성 / 이효상
서재원

〈WONIKIN〉 통권 제 59호

발행일 2019년 9월
 발행인 박영규
 발행처 원익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기획 디자인 PEOPLE PAGE 02.6674-7845

사보 〈원익인〉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익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8

똑똑한 반도체

비메모리 아닌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성공 DNA 이식이 열쇠다



12

공감라운지

Book_직지
원익큐엔씨 양기철 과정

16

원익월드

대자연에 대한 동경심과 설렘을 품은 채 시작되다
- 19박 21일간의 미서부 여행
원익머트리얼즈 이진우 과정

20



Boss vs. Leader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원익아이피에스 김동현 부장

24

슬기로운 직장생활

당신을 괴롭히는 폭언 상사에게 고향

28

WONIK HERO 2019

공적상 우수상
씨엠에스랩 김규섭 부장 외 4명

32

NETFLIX



Great Global Company

비약적인 혁신은 자유와 책임에서 탄생된다
넷플릭스

36

그웨이팀

한계 극복, 우리의 성공 역사를 만들어간다
원익머트리얼즈 생산2팀

40

명단공개

열네 번째 원익인명사전
원익아이피에스 전경희 사원

42



멘토링

첫 후배 첫 사수
멘토 (주)원익 백성현 대리
멘티 (주)원익 김상연 사원

문화와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
멘토 원익로보틱스 정우석 부장
멘티 원익로보틱스 알리예바 디나라 사원

50

특별한 덕후님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즐거운 축구, 함께 하실래요?
원익홀딩스 이상훈 과장

56

원익은 지금 ①

유쾌한 사람들의 화창한 소풍
씨엠에스랩 남산골 한옥마을 나들이



60

원익은 지금 ②

내일은 우리가 챔피언
원익홀딩스 - 한성가이즈 FC vs.
원익아이피에스 - TIPS FC

64

원익은 지금 ③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들의 금요일 밤으로!

68

원익은 지금 ④

뭉쳐라! 원익홀딩스, 뚫어라! 반도체 경기
원익홀딩스 체육대회 2019

72

행복일터

원익인이 생각하는 소통 상호이해



74

News focus

87

Thanks for U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theme.

소통 - 상호이해

Commun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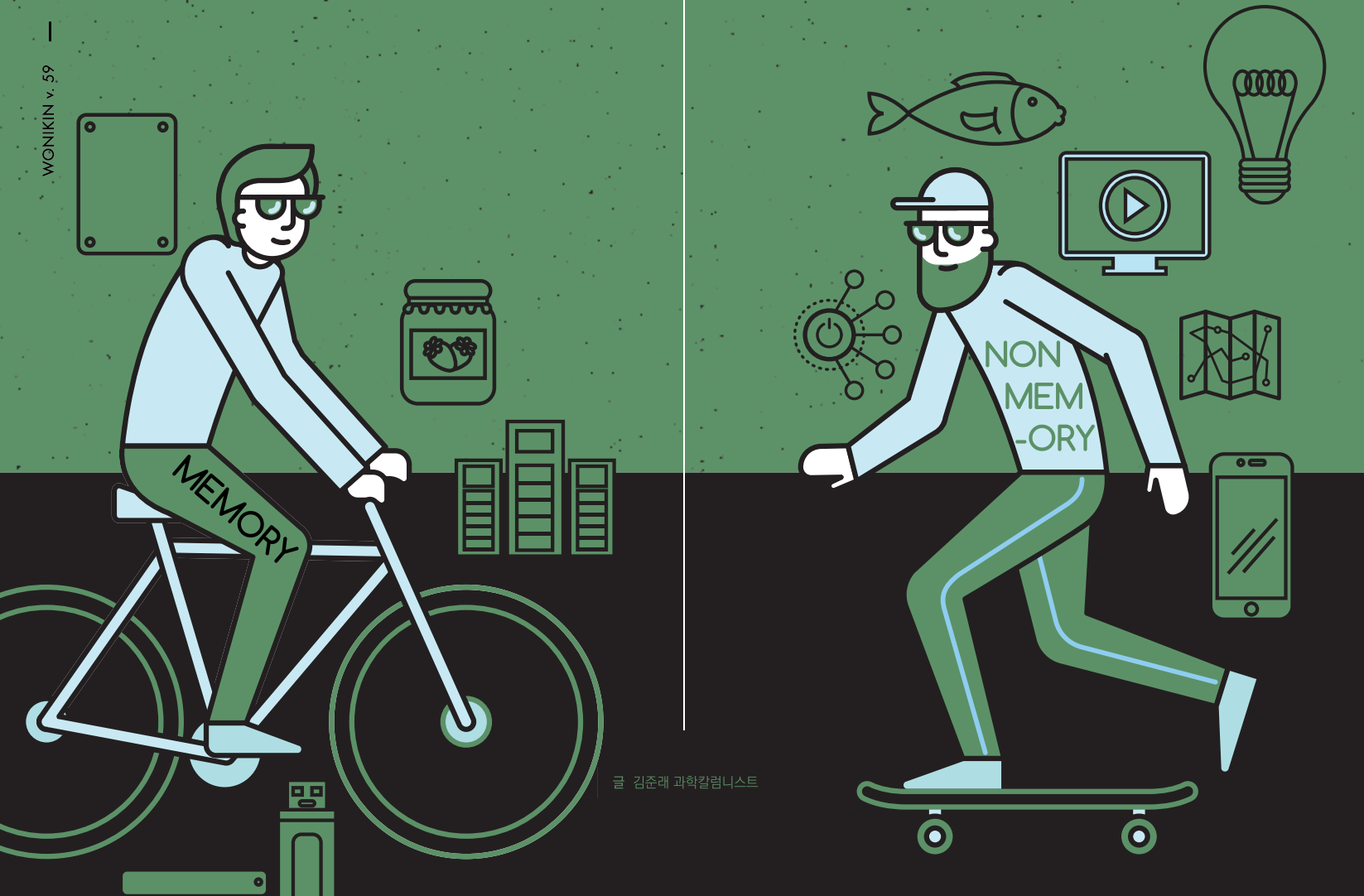
section I.

찌르르르 쓰르르르

매미는 제 울음소리로 모두의 하루를
깨웁니다.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아이들
귀갓길에도, 늦은 저녁 직장인들이
고단한 퇴근길에도 찌르르르
쓰르르르 매미는 읊니다.

비메모리 아닌 시스템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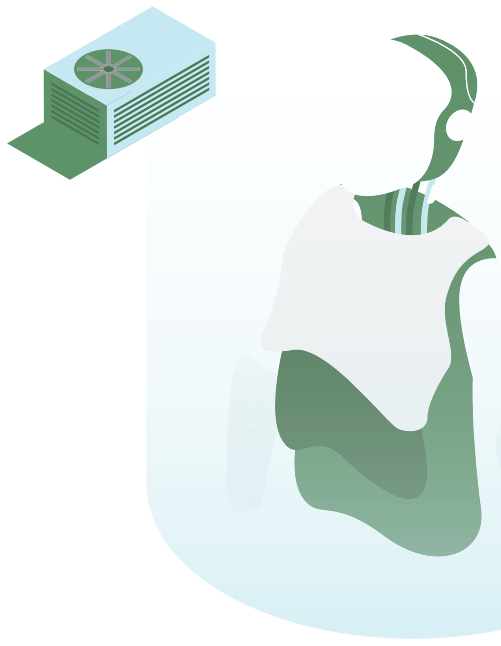
메모리 반도체의 성공 DNA 이식이 열쇠다



글 김준래 과학칼럼니스트

A반도체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C수석연구원과 K선임연구원은 절친한 직장 선후배 사이다. C수석은 메모리(memory) 반도체 개발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있고, K선임은 비메모리(Non-memory) 반도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C수석과 K선임의 재능이나 식성이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의 특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점이다.

C수석은 연구소 내에서 가장 뛰어난 기억력을 자랑한다. 그래서 별명이 '미스터 메모리'다. 반면에 K선임은 계산이 빠른 것으로 유명하다. 아무리 복잡한 수식이라도 한 번 ' 쓱' 훑어보고는 곧바로 정답을 제시한다. K선임이 '걸어다니는 CPU(중앙연산장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데는 그런 이유가 숨어있다는 것이 동료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식성 또한 자신이 담당하는 반도체와 많이 닮았다. 말린 오징어나 쥐포 같은 건 어물을 좋아하는 C수석은 "메모리 반도체처럼 두고두고 저장했다가 아무 때나 꺼내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한다. K선임은 반대다. 바다나 횡집에서 갓 잡은 싱싱한 활어회를 선호한다. 항상 최고의 성능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연구하는 사람답게 신선도가 생명인 활어회를 좋아하는 것이다.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넘어가는 반도체 산업 비중

C수석은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메모리 반도체 개발과 함께했다. 지난 세월 동안 흘린 땀과 눈물로 오늘날의 A반도체를 일궈냈다는 사실은 그가 가진 최고의 자부심이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이 전부라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종류도 DRAM과 낸드플래시 등 2~3가지에 불과해서 설계도대로 제조만 잘하면 되었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보다는 기존 제품을 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만드느냐가 사업의 핵심이었다.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는 물론, 각종 IT 관련 제품에서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한 뒤, 외부 환경을 인식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이 비메모리의 역할이다.

더군다나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값이 싸다. 부가 가치 면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제조했던 인텔이 일찌감치 메모리 사업을 접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보다 수십 배나 더 비싼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경영 면에서 볼 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비판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창출된 모바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다시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갈고 닦은 미세공정 설계 기술이 모바일 시대를 맞아 더욱 필요해지면서 C수석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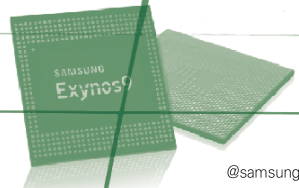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는 물론, 각종 IT 관련 제품에서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한 뒤, 외부 환경을 인식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이 비메모리의 역할이다.

비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표현이 더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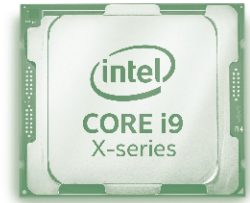
K선임은 요즘 들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위상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서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 회사의 미래는 K선임이 담당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걸려있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기 때문이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연산이나 논리와 같은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로는 인텔의 PC용 CPU나 퀄컴의 스마트폰용 AP(응용프로세서) 등이 꼽힌다. 비메모리 반도체의 용도는 가히 무궁무진하다.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는 물론, 각종 IT 관련 제품에서 센서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한 뒤, 외부 환경을 인식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것도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의 몫이다. 이밖에도 자율주행차나 5G 시스템에도 널리 활용되는 등, 비메모리 반도체는 한마디로 말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의 시장 규모도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4배에 달한다. 이처럼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압도하다 보니,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표현 대신에 '시스템 반도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용어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표현이어서 시스템 반도체가 더 적절한 용어라는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개발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K선임은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처럼 이미 정해진 설계대로 제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면서 "기능과 용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도체를 설계하면서 창의력을 반영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samsung



@in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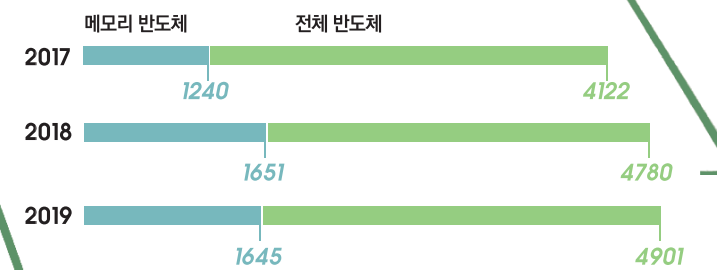
메모리 반도체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C수석과 K선임은 최근 열린 사내 전략회의에 나란히 참석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제패한 데 이어, 시스템 반도체 시장마저 석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A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과연 1위에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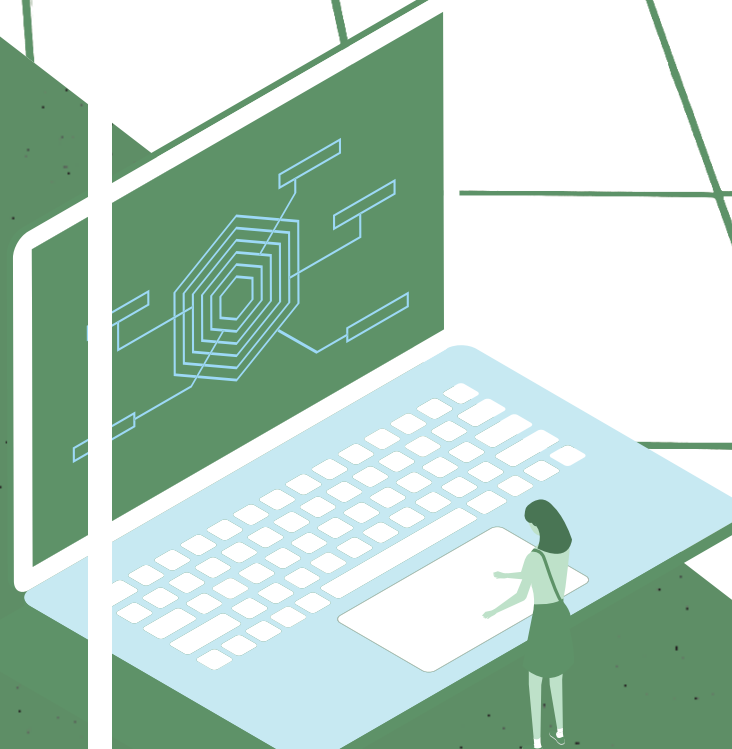
이에 대해 C수석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전망하며 "메모리 부분의 전문인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공정 설계 기술, 그리고 수많은 생산과정을 통해 확보한 제조 경험 등이 연결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수석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성공 요인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가진 자원을 예로 든 것은 이 분야가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공정을 거쳐야 하고,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A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완전히 새로운 분야는 아니다. 오래 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자사의 가전 제품 등 모든 사업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선임도 "종합 전자회사인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절대적 우위와 IT 및 가전 제조기술과의 연계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도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단위)



자료 :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



직지

아모르 마네트

김진명 지음

Recommend

양기철
과장

원익큐엔씨

BOOK



일류대학에서 은퇴한 한 교수의 죽음 속에서 밝혀지는 금속활자 ‘직지’

이 책은 인쇄술의 혁명이라 알려진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본의 발명에 앞서 고려의 직지가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만들어진 소설입니다. 직지는 실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1377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지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세계 지식혁명을 이룬 것으로 더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나라의 직지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의 뿌리가 되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것이 어떻게 서구로 전파되었는지를 허구 아닌 허구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직지의 이야기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전파에까지 이어집니다. 저 먼 옛날에는 백성들이 글을 읽고 책 속에서 지식을 배운다는 자체가 반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과 신미대사는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그 속에서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의 위대한 글자인 한글을 창제하였고,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자인 고위 세력들의 반대로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오늘날 책이라는 것을 쉽게 접하게 되기까지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을 떠올려보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책의 부제 ‘아모르 마네트’는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60년대 반도체 산업의 태동기를 시작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직지와 한글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정신과 DNA가 우리 몸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후손으로서, 원익인으로서 세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며, 일본의 역사 왜곡과 무역 보복 등 불안한 시국에 놓여있는 지금 이 책을 통해 우리 민족의 위대함과 자긍심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가올 한글날을 맞이하여 세종대왕과 신미대사, 그리고 관련된 모든 학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 원익큐엔씨 양기철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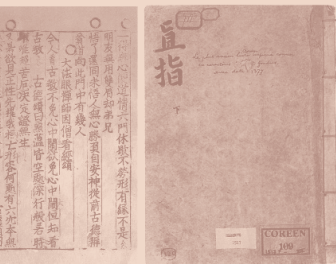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코리에서 왔다

직지와 한글은 한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정신문화입니다. 정보를 기록하고 알리는 고도의 인류정신이 민족적 재능으로 이어져 지금의 반도체 강국을 만든거죠. 자랑스러운 한국의 3대 걸작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세계에 제대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김진명

과연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고려 '직지'로부터 나왔는가?

지난 천년간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최고의 발명으로 꼽힌 것이 무엇일까?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금속활자가 우리의 '직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신작을 낼 때마다 독자들의 폭발적 사랑을 받아온 김진명 작가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장편소설 『직지』(전2권)로 돌아왔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부터 『미중전쟁』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온 그는 밀리언셀러 작가답게 신작에서도 탁월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솜씨를 발휘하며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인간 지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유산을 놓고 지식을 나누려는 자들 vs 독점하려는 자들의 충돌, 그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인물들의 기막힌 운명이 펼쳐진다.

책 속에서

시선이 닿는 곳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이 치솟아 있고, 조부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원나라의 만권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책들이 쌓여 있는 도서관이 도시마다 널렸고, 또한 집채만 한 바윗덩어리들을 사람의 등짐이 아닌 줄 하나에 매달아 하늘 높이 끌어올리는 놀라운 기술을 모두 가진 이 세상에 어찌하여 아직까지 금속활자가 없다는 것인가! **118p**

“그 여자가 왜 악마의 씨앗인지 모르겠나?”
 “알지 못합니다.”
 “그 여자는 책값을 반으로, 아니 반의반으로, 아니 그것의 반으로, 또 반으로 떨어뜨려. 그 결과가 무언지 정말 모르겠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무식하고 저급하고 비열한 자들이 다 책을 보게 된다. 세상은 시정잡배의 성토장이 되어버려. 네가 그 여자를 어디에 숨겼는지, 왜 숨겼는지 묻지 않겠다. 단 한 자라도 금속활자가 세상에 나오면 너를 파문하겠다.” **171p**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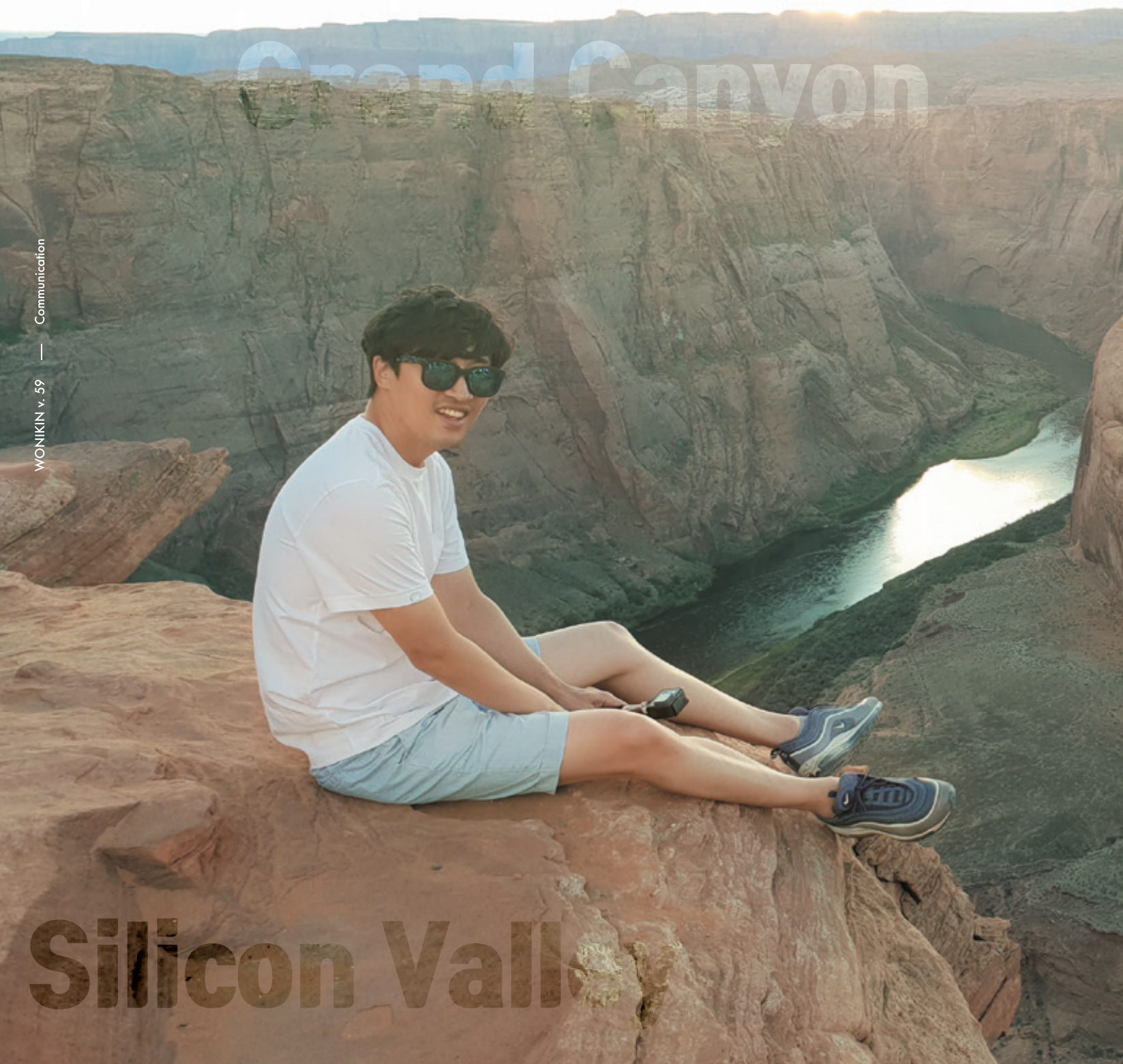
1957년 부산에서 태어나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의 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 공부에 제쳐두고 철학, 역사 분야의 책을 읽었으며 대학 시절에는 사법 고시 공부보다는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으며 세상과 사회에 대한 시각을 넓혔다. 김진명의 대표작으로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도를 펼쳐 보임으로써 베스트셀러가 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일제의 문화재 약탈과 광개토태왕비의 비밀을 파헤친 『몽유도원(구판 : 가즈오의 나라)』, 금융 대란과 함께 찾아온 우리의 정신 문화 위기와 그 극복을 위한 『하늘이여 땅이여』, 한국 현대사 최대의 미스터리 10.26을 통해서 미묘한 한미 관계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보여준 『1026(구판 : 한반도)』, 고대사 문제를 새롭게 조명해낸 『천년의 금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 고구려의 이야기를 최근의 국제정세와 함께 풀어낸 『고구려』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Yosemite

Grand Canyon

WONIKIN v. 59 — Communication

Silicon Valley



배낭 여행지로 미 서부를 선택한 건 나의 오랜 버킷 리스트였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시절 아이맥 바탕화면에서 처음 접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절경은 나의 목표이자 꿈이 되기에 충분했다. 유럽에서도 파리, 로마 등의 대도시보다는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눈으로 보고 체험할 때 행복한 감정을 느꼈고 하와이에서도 와이키키의 번잡함보다는 이웃 섬의 대자연을 접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을 만큼 나의 취향은 도시보다는 자연의 웅장함을 동경하고 있는 듯 했다. 요세미티를 목표로 미 서부 관광지를 찾다 보니 SNS에서 핫한 그랜드캐니언 등 미 3대 협곡의 웅장함과 아름다움, 성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라스베이거스, 애플 & 구글 등 4차 산업혁명이 치열하게 시작되고 있는 산호세,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America West



19박 21일간의 미서부 여행

대자연에 대한 동경심과 설렘을 품은 채 시작되다..

Las Vegas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WONIKIN v. 59 — Communication

**원익머트리얼즈 품질보증팀
이진우 과장
2018. 9**

원익에는 원익인 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해외 배낭여행 프로그램이 있다. 매년 지원을 통해 30명을 선발하여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자유롭게 떠나보는 기회를 경험한다.

산호세 실리콘 밸리 투어

한국을 떠난 지 16시간째, 미세먼지 하나 없는 산호세의 맑은 하늘을 보는 순간 피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글로벌 IT 업체들을 방문하며 원익의 3대 가치 중 자유, 행복의 정답이 무엇인지 예측해 볼 수 있었다. 건물의 모양, 정원의 조형물, 로고 및 디어는 것 하나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개성을 살린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듯했으며, 캠퍼스를 걷는 직원들 표정이 하나같이 밝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근무시간 중에도 자유롭게 야외활동을 하며 충분한 리프레쉬를 하는 모습은 왜 이곳이 글로벌 기업이고 IT 강국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배낭여행지로 미서부를 선택한 이유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가 예약한 롯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뷰 포인트를 갖고 있었다. 머무르는 자체로 리프레쉬와 힐링이 되는 곳. 2박 3일간 요세미티 공원은 너무 커서 일부분밖에 감상하지 못했으나 어디를 가든 '우와'로 시작해서 '우와'로 끝나는 여정이었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공원 내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머물고 싶을 정도로 내가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떠나는 날 발걸음이 이토록 아쉬울 수 있을까' 다음번 기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리라 마음먹었다.



라스베이거스 시티투어

명성 그대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 수많은 관광객, 눈부신 조명, 네온사인, 거대한 규모의 호텔 & 리조트까지 관광을 위해 만들어진 도시 그 자체였다. 흥미로운 것은 라스베이거스 공항 내에도 카지노 시설이 있었으며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호텔투어만으로도 하루 이상 소요될 정도로 전세계 유명 체인 호텔이 도시 내 모두 존재하고 있었으나 요세미티 관광 후 도착해서인지, 나의 취향 때문인지 사실 요세미티만큼의 감흥은 없었다.(하하하) 하지만, 세계 3대 분수 쇼를 불리는 벨라지오 호텔 분수 쇼는 라스베이거스 방문을 추천할 만큼 엄청난 장관이었다. -이것 만큼은 추천 3방!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

속소 옆에 누워 밤하늘에 쏟아지던 별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한동안 멍하니 풍경을 감상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캐니언의 웅장한 모습은 인간이 대자연 앞에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다. 사진은 어느 곳에서 누가 찍던지 예술. Window 바탕화면으로 많이 접했던 엔젤로프 캐니언은 그랜드캐니언과는 다른 감동이었다. 순간, 이토록 아름다운 땅속을 관람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회색에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핫하다는 호스슈벤드는 역시 인터넷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이번 여행 기대치는 2순위인 장소였으나 다시 오고 싶은 장소 1순위로 올라갈 만큼 그랜드캐니언의 모습은 사진으로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장관이었다. 일정의 여유만 있었다면 머무르는 시간을 조금만 더 연장하고 싶을 만큼 미국 여행 중 가장 떠나기 아쉬운 장소였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는 금문교와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고 방문하고 싶어 하는 도시이며 샌디에이고는 미국 내에서 은퇴 후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꼽힐 만큼 매우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하다. 아이들을 위한 대형 박물관, 체험관, 테마파크 등이 많고 잘 운영되고 샌디에이고는 도시 자체가 아이들을 위한 컨셉으로 개발되어 수많은 키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들은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많은 부분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한민국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운영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





실패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아는 것
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스스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승리는
동기부여다. 자신의 승리를 믿게 하기 위해 작
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들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게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게 한다. 자신감이 커지기 시작하면 더
힘든 도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기에-



부장 김동현

원익아이피에스 영업1팀

KIM DONG HYUN

Boss vs. Leader



BOSS

#아이엠boss #그것밖에안돼 #당근없이채찍만



LEADER

#goodleader #할수있다믿음 #솔선수범 #믿음을주는리더

남들은 불가능하다 여기는 일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김동현 부장의 모습을 보며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 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해 전, 해외 출장이 잦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번 씩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면양, 심천을 거쳐 대만, 일본을 잇는 3개국을 4박 5일이라는 숨조차 고를 틈이 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복귀하는 모습은 마라토너의 성공적인 미소를 떠올리기에 충분했죠. '일'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를 볼 수 있었고 어떤 종류의 '일'도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누구보다 멋져 보였습니다. 때론, 업무에 관한 오너십이 강하여 자칫 팀원들로 부터 걱정어린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그만큼 맡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추진력을 가지고 '네 일, 내 일'을 가리지 않고 일을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일은 노력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김부장의 좋은 영향력이 다른 구성원에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널리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원익아이피에스 최형섭 전무

'일은 사람이 한다. 따라서 일을 잘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잡아라'라는 말이 있듯, 진정한 리더는 구성원 스스로 오너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지요.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익아이피에스 디스플레이 본부 영업1팀의 김동현 부장입니다. 2011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참된 리더는 뒤에서 떠미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끌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솔선수범, 비전 제시, 책임감 등... 참된 리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솔선수범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한 저를 리더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못하는 일이 구분되지요. 모든 일을 다 잘 하는 사람은 보기 힘든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의 격식과 구분보다는 업무에 대한 동반자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신입 시절, 하루 24시간을 업무에 매진하는 슈퍼맨 상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회사에 살다시피 하는 것은 물론 어느날은 회식을 하다 놓친 일이 있어 한밤중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뒷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저런 책임감이면 뭘든 못할까 생각했죠.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스스로를 관리하고 일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합리적인 상사였습니다. 나도 저런 상사가 되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사회에 처음 나온 신입사원에게는 회사는 생소한 곳일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정보와 기술이 산재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급이 올라 갈수록 실무를 처리하느라 다른 곳을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성장하기 위해 저는 본인의 업무보다 더 큰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바랍니다. 이러한 관심은 불통, 불신이 줄어들어 소통과 상호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합니다.



회사라는 한 공간에서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같은 목표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치는 경향도 많이 있는데요.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모두 잘 될 수 있도록 업무 합리성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업무의 합리성은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정이며, 이러한 규정을 잘 만드는 것이 회사가 구성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요. 요즘 시장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객 다변화 및 신규 시장을 진입하여 단일 본부 매출 1조 달성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본부 전체 살림을 도맡은 영업팀원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WONIK

率先垂範

당신을 위한 팽귤의 팽귤은 귀

폭언 상사에게 고발



◆◆◆ 면책한 솔루션 (법륜스님의 죽문죽살) 강연 중에서



법륜스님 불교 조계종으로부터 사미계를 받고,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설립, 다양한 종교 활동과 사회 활동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다. '엄마수업', '방향해도 괜찮아' 등의 많은 저서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였고, 사회운동가·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2002년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대중들의 고민거리를 듣고 나누는 '죽문죽살' 강연을 통해 인생의 멘토로서 활발히 활동중이다.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직장생활 인간 관계 또한 그러하지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게 또한 인생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오는 여러 말 못할 문제들.. 대화를 나누며 함께 답을 찾는 과정을 들여다 보자.

“처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업무가 많이 서툴러서 기한을 놓쳤어요. 예산 관련 일로 급하게 처리해야 해서 관장님 결재를 받는데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실수를 지적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울먹임) '가정교육을 못 받은 티가 난다. 너 같은 성격이 너무 싫다. 머리 스타일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식이었어요. 부모님 이혼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도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연

법륜스님 — 아이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나 보네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직책이 뭔데요?

사연인 — 관장님이요. 제일 높은 분이었어요.

이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 '아, 이건 직장 내 폭언이다. 내가 여기에 일하러 왔지 너한테 이런 폭언을 들으러 온 건 아니다. 이걸 인격 모독이다' 그러면 바로 고발을 해야 해요.

둘째, '그런 정도는 사회생활 적응하는 훈련,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짱을 키우는 거예요. '일도 못하는 게 머리가 너무 길다'라고 하면 '일하는 것과 머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어디서 말대꾸하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요. 말대꾸를 토박토박하기 보다 조금 유머러스하게 받아치는 거죠.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표가 난다고 하면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싸우느라 가정교육을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한 것을 두고 질문자가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진 거지,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죠. 그러니까 발끈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당신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1년 지내며 면역력을 키우면 이걸 사회생활의 단련 훈련이니까 나중에 고마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고발해서 시정하는 것도 못하겠고, 그걸 유머로 넘겨서 멧집을 키우는 쪽으로도 못하겠으면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만두거나, 적응하거나, 고발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상처가 많이 됐고, 다음 직장에서도 또 반복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대범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필요하다면 시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대처하면 돼요. 민주화 운동하려면 감옥 갈 각오도 하고 독립운동할 때는 죽을 각오도 해야 하듯이, 회사 갑질하는 걸 시정하려면 왕따도 좀 당하더라도 뚝뚝해야 해요. ‘너희가 비웃든지 말든지 난 이걸 시정하고 말 거야’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가면 또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피하기만 하다 보면 평생 쫓겨 다니며 피하고 살아야 해요.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건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그건 지나갔으면 버려야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상처 입은 것이 계속 덧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안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도 작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마음이 위축됩니다.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인간이 그렇게 말해도 내가 잘 견뎠는데 그런 정도야 이제 잘 견딜 수 있지’ 이렇게 이걸 좋은 경험 삼아야 해요. 하지만 상처로 남아 그걸 법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고발을 해야겠지요.”

“이제 다음 회사 들어갈 걸 대비해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질문자한테 선물을 하나 줬어요. 고맙다며 덤석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쓰레기만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면 질문자는 어떻게 할래요?”

“버려야죠.”

“질문자는 지금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선물을 계속 갖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열어보고 ‘이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걸 줄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매일매일 그걸 쳐다보고 성질내는 사람이예요.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일리죠. 왜 다시 끄집어내서 곱씹고 괴로워해요? 지금도 눈물 흘리잖아요. 정말로 올바르지 않은 말이라면 그럼 쓰레기통에 빨리 버려야죠.”

“버리겠습니다.” (청중 박수)

‘제1의 화살을 맞을지언정 제2의 화살은 맞지 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이 던진 말의 쓰레기를 지금까지 움켜쥐고 다녔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에이, 그래. 쓰레기통에 버리자!’ 이라고 탁 버려 버리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다 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고, 자식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고, 배우자는 더더욱 안 줘요. (청중 웃음) 회사 가도 안 줘요. 이처럼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한 번은 정중하게 시정을 요청하고, 두 번째로 또 그러면 강하게 얘기해야 해요. 세 번째 또 그러면 딱 고발을 해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할 때 내가 정중하게 요청했고 두 번째 할 때 내가 강경하게 항의했는데도 세 번째 또 했으니까 이것은 확실해지죠. 이렇게 고발을 해서 시정을 하려면 ‘했다, 안 했다’ 하는 논쟁이 될 것에 대비해야 해요. 내가 당했다는 얘기만 가지고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요령껏 살아야 해요. ‘세상이 알아서 다 나를 위해서 해주겠지’ 이런 건 너무 어린애 같은 생각이예요. 적극적인 노력이 적극적인 해결을 가지고 오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감사할 줄 알아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늘 이렇게 싱글싱글 웃고 지내지만 세상의 온갖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우는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지원을 하든지 하고요. 이렇게 뭘 해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WONIK**



상사가 욕설을 할 때, 고쳐주고 싶다면 다음부터는 스마트 폰 녹취를 하세요. 증거를 꼭 모아 변호사한테 이 정도면 고발이 가능한지 묻고 ‘아이고,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은 다반사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그 정도는 적응하고 살아야죠.

‘이건 직장 내 폭언에 들어간다. 이건 부당노동행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료를 첨부해서 고발하세요. 한두 번 한 걸로는 안 돼요. 날짜별로 확실한 자료를 모아 고발하세요. 그렇게 모으면서도 중간중간에 웃으면서 ‘관장님, 폭언이 좀 심하십니다’ 이것도 녹음해야겠죠. 그러면 그는 더 화낼 거예요. (청중 웃음) 내가 일방적으로 고발한 게 아니라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증거까지 다 축적을 해서 딱 고발을 해야 한꺼번에 날릴 수 있죠.

그냥 한 번 이랬다고 흥분해서 가서 고발하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죠. 판사도 보면서 ‘아이고, 뭐 살다 보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당한 게 있으면 메일을 보내든 뭘 보내 가지고 시정 요청을 하고, 또 답을 받고 다시 시정 요청을 하고, 또 답을 받고 하면서 자료를 축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쭉 축적을 해서 딱 이야기해야 겠죠.

공적상 우수상

씨엠에스랩

김규섭 부장 외 4명



올리브영 채널에서
17년 4분기 입점 및 1분기 만에
Category 단품매출 1위.
12월 선크림 전체 카테고리중
M/S 42% 달성-> 업계최초 사례
(18년 상반기 전체 2위 달성).
기초POG(6개 SKU) 500개 매장
일괄 입점 (이례적 입점 케이스).

원익인상을 받고 싶다는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회사 매출
1천억 달성의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가장 셀류전씨답게 올리브영스러운

입사 후 원익인상을 받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서, 시상식을 보
며, '나도 꼭 저 자리에 서야겠다'라는 소망을 했었습니다.

원익인상을 받고 알게 된 거지만, 올리브영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노희석 대리도 원익인상 시상식을 보면서 저처럼 꼭 저
상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웃음)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씨엠에스랩 임직원분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
다. 제가 담당하는 국내 B2B 분야는 최근에는 H&B 채널을 대
표하는 "올리브영" 운영이 핵심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
년 12월 입사 때 당사는 그동안의 병원 영업 위주의 브랜드 정
책으로 올리브영 채널 전략 수립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
다. 당사는 올리브영 유통에서의 성공적인 전개를 위해 다음의
3가지에 집중하였습니다.

1. 올리브영 시장에 대한 이해와 담당 MD의 니즈 파악.
2. 올리브영에 특화된 우수한 영업사원 발굴.
3. 핵심 KEY ITEM에 집중.

당사가 가지고 있는 메디컬 기반의 우수한 제품과 히스토리를
올리브영스럽게 과감하게 혁신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생
각했고, 그 제품이 바로 "셀류전씨 레이저 썬스크린 100"이었
습니다.

20년 이상 경력으로 화장품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담당 MD의 니즈도 어떤 것인지 알지만, 셀
류전씨의 브랜드 인지도나 컨디션 측면에서 50ML 단 상자에
42,000원 하는 레이저 선크림을 있는 그대로 올리브영에 제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깊어가던 때에 올리브영 MD로부터 레이저 선
크림에 관심이 있으니 미팅이 가능하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영
업을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도 일단 부딪혀 보고 그 속에서 전
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답부터 만들려고 했던 제가 부끄러웠
습니다.

추후 용량을 35ML로 줄이는 대신 과감하게 가격을 29,400원
으로 낮추었고, 셀류전씨스러우면서도 올리브영스러운 이미지
를 만들어 판매에 성공하였습니다. 메디컬 이미지를 담기 위해
병원 소독약 모양의 틈케이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타 브랜드
와 다른 신선한 이미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프로모션으로 경쟁하기보다는 "4계절 동안 바르
는 선크림", "스킨케어 선크림"이라는 컨셉으로 고객에게 다가
갔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
니다. **WONIK**

회사에 대한 자부심, 회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부서이해를
떠나 "어떻게 하는 것이 회사가
잘 되는 방향인가?"
"내가 회사를 위해서 뭘 좀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야말로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적인 마인드다.

노희석 대리

역지사지 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여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야만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현아 과장

보완재 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수단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김소연 과장

에너지 다. 상대에 대한 에너지가 있어야 소통할 수 있기도 하고,
소통을 통해서 또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 '상호이해'는?

상호존중이다. 상호 간에 존중해야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규섭 부장

원익이 주목한 세계
|
키워드로 읽는
글로벌 기업의 핵심 역량



넷플릭스

비약적인 혁신은 자유와 책임에서 탄생된다

원익이 주목한 세계, 두 번째 주인공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이다. 1997년, 비디오와 DVD 대여사업으로 시작한 넷플릭스는 10년 뒤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영역을 확장하여 오늘날 유료 가입자만 5700만 명에 이르는 명실상부 업계 최대 사업자로 성장했다. 리드 헤스팅스 CEO는 넷플릭스의 이름을 인터넷(NET)과 영화(flicks)에서 따온 것처럼 창업 당시부터 인터넷으로 영화를 유통할 생각을 꿈꿨다고 밝힌 바 있다. 마침내 동영상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는 “창업자는 반드시 반대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PART 1. 식품 — 네슬레
좋은 식품이 행복한 생활을 만든다
- PART 2. 엔터테인먼트 I — 넷플릭스
방송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다
- PART 3. 물류 — DHL
운송서비스,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다
- PART 4. 엔터테인먼트 II — 디즈니
기업이 된 애니메이션 창작 집단

연체료 대신 구독료를 받는 비디오 대여사업 시절을 거쳐 셋톱박스를 넘어서는 OTT 서비스로 기존의 콘텐츠 유통구조에 혁신을 일으킨 넷플릭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과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끝없이 묻는다. “무엇이 넷플릭스를 성장하게 만들었나요?” 정답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지상파 방송과 수백 개의 케이블 TV 채널을 대체하기까지 그들이 지켜온 자유와 책임의 문화에 있었다.

가족 같은 회사? NO! 대세는 ‘스포츠팀’ 스타일 경영

넷플릭스 가입자는 2017년 7월 기준, 1억 명을 돌파했고, 2018년 3분기 기준으로 1억 3천 700만 명을 단기간에 돌파했다. 또한 넷플릭스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들은 발표할 때마다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올해 매출은 2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를 두고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평가한다. 사업이 강한 기업은 1~2년간 정상을 유지할 수 있고, 전략이 강한 기업은 3~4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문화가 강한 기업은 5~10년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넷플릭스는 단연 ‘기업 문화의 힘’을 증명하는 대표 기업이다.

넷플릭스의 경영 방식은 마치 스포츠팀이 각 포지션을 최고의 선수들로 채우는 것과 비슷하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최고 인재를 영입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재관리에 대한 기본 철학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 애쓰며, 그저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적합한 사람을 쓰려고 노력한다. 채용을 잘한다는 것은 ‘직무와 인재를 잘 연결하는 것’으로 여기는 게 바로 넷플릭스의 철학이다.

NETFLIX said

“출근을 해서, 자신이 믿고 존경하는 동료들로 이뤄진 제대로 된 팀과 함께, 미친 듯이 집중해 멋진 일을 해내는 것. 대부분의 사람이 ‘일’에서 원하는 것이다.”

- 패티 맥코드 (前 넷플릭스 최고인재책임자)



최고 수준의 자유에서 높은 성과가 나온다

우수한 직원이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 관리자는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맥락을 제대로 제공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리드 헤이스팅스 (現 넷플릭스 CEO)

1 좋은 직장은 최고의 동료들이 있는 곳이다

좋은 직장은 커피 머신, 맛있는 메뉴, 화려한 파티, 고급 사무실이 제공되는 곳이 아니라 최고의 동료들이 가득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다.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최고가 되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다.

2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무실에 얼마나 오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가 지속되면, 권한을 더 주고 급여를 높인다. 넷플릭스는 일을 얼마나 많이, 빨리, 잘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3 직원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넷플릭스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더 큰 자유를 줄지 고민한다. '자유와 책임'은 그들에게 유연성과 창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시간도 체크하지 않는다. 심지어 직원들의 휴가도 추적하지 않는다. 본인이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면 휴가를 가고 싶을 땐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이에 직원들은 자유 그 자체보다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며 창의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



4 동종업계에서 최고임금으로 대우한다

시장에서 가장 높은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문화의 핵심이다. 이때, 보상은 넷플릭스의 성공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동기부여는 연봉 수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객 연봉은 복지 방식 중 가장 효율적이다.

5 통제가 아니라 맥락을 전달한다

통제보다는 맥락을 설정하여 전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데에 집중한다. 통제는 상명하복의 결정, 승인 절차 관리이고 맥락은 전략, 핵심 지표 설정, 가정, 추론 등을 뜻한다. 우수한 사람들은 맥락을 이해하고 행동할 때 일을 더 잘 해내기 마련이다.

6 적극적으로 솔직한 토론을 권장한다

넷플릭스에는 시작해라, 그만해라, 계속해라 운동이 있다. 동료에게 시작해야 할 것과 그만해야 할 것, 그리고 계속해야 할 가지씩을 솔직하게 소리 내어 말하기를 권장하는 것이다. 즉, 완전히 솔직한 피드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다. 기업은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이 모인 집단이다. 따라서 서로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사심 없는 소통을 해야만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도 연례 인사고과 평가 대신 수시/상시적 피드백을 통해 문제가 유연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처리한다.



한계 극복. 우리의 성공 역사를 만들어간다

원익머트리얼즈
생산2팀

성공은 한계를 극복한 스토리 속에서 더욱 빛난다. 성공의 기회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서 찾아오기도 한다. 희망에 대한 강한 의지와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구슬땀을 흘렸던 노력이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해 준다. 한계를 넘어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로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간 사람들. 원익머트리얼즈 생산2팀은 한계 극복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있던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반에 다시 노력을 더해 더 큰 성과를 일구어간다.

원익머트리얼즈 생산2팀은 회사의 3개 사업장 중 세종시의 전의산업단지에 있는 전의 사업장에서 N₂O(아산화질소)·NO(산화질소)가스와 레이저혼합가스를 생산한다.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로, 해당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점유율을 높여왔다. 특히 반도체 공정과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특수가스의 국산화에 기여해 오며 일본발 수출규제에 맞서고 있어 향후 매출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도 하다. 주력 제품인 N₂O 생산설비의 가동률은 90~100%에 이르고, 얼마 전에 생산을 시작한 레이저혼합가스의 경우 미래의 먹거리로써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생산2팀의 구성원은 모두 29명으로, 16명은 4조 3교대로 생산설비에서 근무하고 9명은 제품충전 업무를 담당한다. 또 사무업무와 관리업무를 맡은 4명의 사무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우리의 성공을 담보할 첨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생산2팀을 만나봤다.



“성공의 길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물도 빵도 아닙니다. 바로 목적지까지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나침반과 지도입니다. 생산2팀은 서로에게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해주며 성공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래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특수가스 생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산2팀을 소개한다면?

오운영 부장_____생산2팀은 N₂O·NO가스와 레이저혼합가스를 주요 생산품목으로 하여 생산능력과 기술력에서 글로벌 넘버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N₂O가스는 우리 회사의 생산능력이 세계 수위권이고, 지난 8월부터 가동한 레이저혼합가스 생산시설은 국내외를 통틀어 가장 최신의 설비라 자부합니다. 최근 들어 일본의 부품·소재 분야 수출규제로 인해 대외 상황이 급박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를 한계가 아닌 기회로 삼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과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임종영 기장_____생산2팀 직원들 대부분은 5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김명수 파트장, 김재호 기장 등은 곧 10년이 되고요. 오운영 부장님은 13년 베테랑이시죠. 또 둥글둥글한 성격에 팀 화합을 우선하는 직원들이고, 저마다 쌓아온 노하우가 출중해 업무적으로 잘 조화를 이뤄 일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파트장_____저는 7년 정도 타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년 전 입사했어요. 그리고 생산2팀으로 새로이 터 잡은 게 3개월쯤 되니 아직은 팀에 적응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터춤패에 비하면 팀 직원 모두를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장에서 소통하는 데에 거리낌 없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면 '내가 참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회사의 전 조직이 그렇겠지만 저도 여기에 와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가정생활과 취미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 참 복 받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호 기장_____강요하지 않는데도 회식 참석률이 100%를 넘습니다. 휴무자들도 대거 참석하는 거죠(웃음). 무엇을 하자고 하면 다들 동의하며 제 역할을 찾아냅니다. 어디서 이만한 동료들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요.

직원 간 협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임종영 기장_____우리 생산2팀이 가장 자랑하는 부분이 있다면 생산파트와 사무파트가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반사항을 만드는 일에 생산파트보다 사무파트에서 먼저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어느 현장이든 불만이 아주 없을 수 없지만 우리만큼은 불만 제로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재인 사원_____생산파트 직원 분들이 팀 분위기를 자유롭게 이끌어주는 덕분이죠. 오운영 부장님도 부드러운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고요. 서로 간에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 그만큼 신경 써 주는 게 아닐까요?

김슬 사원_____파트와 직급의 구분과 차이는 있지만, 이에 구애됨 없이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안전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생각하는 게 있으면 거리낌 없이 토의를 벌이곤 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을 이뤄 나가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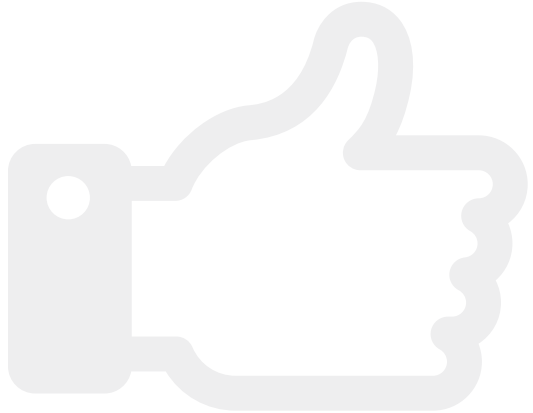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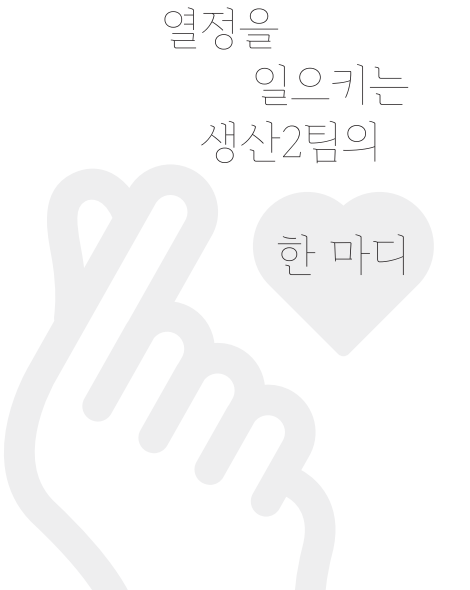
정형욱 기사_____업무 특성상 만일의 위험요소, 불안정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와 근무환경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지요. 휴식 시간이나 회식 때는 긴장을 풀고 화기에애한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업무적으로는 각자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완벽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밀당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하고도 쾌활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생산2팀이 꿈꾸는 미래, 궁극적인 목표는?

오운영 부장_____현재 생산2팀의 이슈는 레이저혼합가스의 출하, 주력 제품인 N₂O가스의 가동률 90% 이상 유지입니다. 레이저혼합가스의 경우 우리 회사의 향후 캐시카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대외적으로 악재가 많지만 우리 사업장의 N₂O가스 생산 가동률을 90% 이상 유지해 매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영 기장_____생산2팀뿐만 아니라 전의사업장의 모든 조직이 가족과 같이 소통하며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직원의 행복이 제일의 가치라고 강조하는 부장님, 공감과 소통이 최고의 장점이라며 회사의 시책과 팀 활동에 빠짐없이 동참하는 직원들이 있어 항상 든든합니다.

김명수 파트장_____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리더, 본받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생산2팀은 최고의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합심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선임부터 솔선하겠습니다. 생산2팀 파이팅!





전경희

1989.03.02

원익아이피에스 반도체연구소 모듈개발팀 팀원

물고기 자리 / 뱀띠 / A형

이름풀이 : (경희)기운이나 세력이 큰 여자 사람

식물/화분.

어렸을 적에도 우리 집엔 꽃과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고 지나칠 뿐, 물 한번 준 적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꽃집으로 찾아가 화분도 사오고, 물도 주고, 직접 분갈이도 해주면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변화가 저도 신기한데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요..ㅎ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다-

나를 웃게 하는 것들은 일상에 많이 있다. 책, 꽃, 사진, 사람, 사랑,,, 그렇지만 이것들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다. 사람. 어려운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가 많다.

나를 웃게 하는 것-

양방 상호작용이 원활한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 관계는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닌, '너'와 함께 이루는 것으로 서로 간의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방통행의 소통만 발생하는 관계는 그 시작이 긍정이었던라도 좋은 방향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란-

영화 "인턴"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인턴은 정년 퇴직한 시니어 세대의 제 2의 직장 생활(인턴 생활)을 주제로 다룬 것으로, 인물 벤의 역할이 가장 인상 깊다. 오랜 CEO 생활을 은퇴하고, 시니어 세대에 들어섰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 이전 직장생활에서의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이라는 막내역할에도 솔선수범하여 열정을 다 하는 모습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오랜 시간 쌓은 경험과 역할들을 생각해볼 때에, Reset하고 Zero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많은 것을 버리고 비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텐데, 그러한 상황을 즐기고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대단하다 감동을 받았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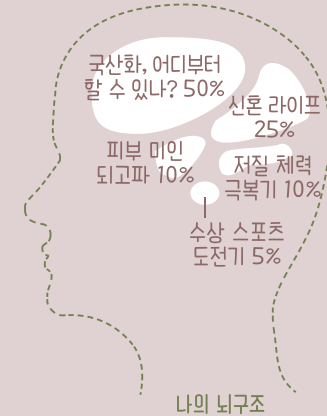
수상 스포츠 입문하기.

무더운 여름날, 바다에서 즐기는 수상 스포츠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좋아하고 자주 찾아가는데, 깊은 물 속에 들어가는 데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뛰어들어 놀지는 못하거든요. 수상 스포츠를 배우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즐길 수 있으니 꼭 이루고 싶은 일 중 하나입니다.

올 해가 다 가기전에 이루고 싶은 것-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인생 중에 가장 다양한 일들을 겪었던 시기였고, 그만큼 무엇이든 잘 극복하고, 헤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가득했던 시기였으므로. 직면하는 대부분의 어려움이 새롭고, 즐거웠던 시간으로 다시 한번 되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



나의 뇌구조

네*버 시리즈.

허구 속에 반영된 비현실을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즐거워서 초등시절부터 만화/소설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때에는 주로 책방에서 책을 대여해서 읽었고, 용돈의 대부분을 책 빌리는데 쓸 만큼 책 읽는 것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지금은, 이를 마음껏 활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휴대폰을 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APP-

여행 가이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설렘과 즐거움으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는 것 같다. 그들과 이야기만 나눠봐도 즐거움이 전염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사람들과 매일 만나고 싶다. 그러한 이유로 여행 가이드라는 직업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100세 인생의 두번째 직업-

소소한 셀프 인테리어.

요즘 셀프 인테리어에 도전하고 있다. 소소하지만 일상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들.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우리를 표현하고 새기기 위한 인테리어다. 연인이었던 우리가 부부가 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발자취를 사진을 활용하여 남긴다. 그런 표현들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게도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함께 그리고 계획할 수 있어서 좋다.

요즘 나의 최애 시간 보내기-

선배에게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고 후배에게 친구처럼 대하며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주)원익의 김상연 사원과 백성현 대리. 근무시간 외에도 게임을 함께 하며 선후배라는 사실을 잊고 재밌게 즐기는 이들은 업무의 매력에 대해서도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첫사수 첫후배

처음이라 더욱 설레는 우리

2019 Semicon Korea에서 백성현 대리님을 처음 뵈었어요. 전시회에서 고객들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모습이 어찌나 멋있던지, 그런 분이 저의 사회생활 첫 사수인 것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엔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대리님께서 평소에 친구처럼 대해주시려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저 또한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선배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기술영업 직무는 직접 제품을 공부하여 소개하고 판매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CS 활동까지 병행하여 고난도 업무가 많아요. infi-TOF 제품의 수리 및 검정 과정이 2인 1조로 이루어지게 되어 앞으로 업무수행 시 대리님께 도움이 되도록 지금 보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크게 2가지 제품을 취급해요. 먼저 미국 CyberOptics사에서 제조하는 WaferSense 라는 센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반도체 장비 내에서 Wafer가 받는 환경을 센서로 인식하여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이는 제품이고, 일본 Kanomax 사의 infi-TOF 라는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이 제품은 Time of Flight 방식으로 설비에

서 생성되는 가스를 분석하는 장치로써 기존 RGA와 같은 제품 보다 더 정밀하게 화학물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이 제품의 경우 저희가 직접 판매 활동과 CS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더욱더 재밌어요.

대리님은 평소에도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그 중 '항상 고객이 먼저다'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객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신뢰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업무를 빠르게 배우고 숙련시키는 게 먼저겠죠.(하하) 내년 하반기에는 직접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하여 저희 제품을 납품하고 실적을 올리는 것이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공채 5기로 들어와서 벌써 8개월이 흘렀네요. 원익에는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세 가지 핵심가치가 있어요. 공채 여러분도 원익에 꼭 입사하시어 제가 느낀 이 세 가지 단어가 회사에 녹아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연 사원 멘티
(주원익 반도체사업팀)

항상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실수를 보완하여 대리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올해 신혼이신데 내년에는 백성현 주니어라는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백성현 대리 멘토
(주원익 반도체사업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부딪치며 얻은 노하우들을 공유하여

업무적으로 능숙해지고 서로 끌여가고 밀어가며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김상연 사원은 저에게 첫 후배이자 부사수로서 앞으로 업무에 적응하는 부분과 제가 업무를 진행하며 느낀 노하우들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싶어요.

현재 맡은 업무는 반도체 생산업체 및 반도체 설비·장비 업체에서 사용하는 Sensor와 가스분석기를 판매하며, 가스분석기 수리 관련 Engineering 업무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진행하는 업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양한 설비와 다양한 과정에서 센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예요. 반도체 공정이나 설비 업체의 경우,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정 및 설비에 관해서는 Specialist이지만, 타 공정이나 설비에 대해서는 접할 기회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예요. 그러나 저희는 센서를 적용하며 다양한 경험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즈니스 적용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가스분석기 수리 파트는 대부분의 작업이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현재 김상연 사원과 둘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서 및 가스분석기 영업 관련하여 평가가 진행될 때 함께 참석하기도 하고 서포트를 하며 경험을 쌓고, 또 평소 업무 시간 외에는 함께 '롤'이라는 게임을 하며 무거운 회사 선후배 타이틀보다는 재밌게 즐기며 소통하는 선배가 되려고 해요. 앞으로 업무에 능숙해지고 서로 끌여가고 밀어가며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배가 되도록 할게요. **WONIK**



“
원익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토양을 제공하는 회사다.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자유, 소통, 행복이 있는 회사다.
”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같이 업무를 해왔지만,
하루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만큼 앞으로
좀 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선배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튼튼한 후배가 되고 싶어요.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가 지금보다 더 노력하여
업무 능숙도를 올리겠습니다.

문화와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

원익 판교 사옥 로비에는 애디가 있다.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공간이며 대화의 장소이고 때론 원익로보틱스 개발팀에는 애디를 마음껏 테스트 할 수 있는 실험 무대이다. 이렇듯 같이 사용하는 공간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같은 행동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사람. 멘토 멘티로서 서로를 차츰 이해해 간다.



Mentor
정우석 부장
원익로보틱스 개발팀



Mentee
알리에바 디나라 사원
원익로보틱스 개발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같은 언어로 말을 하는 우리들 사이에도 미묘한 감정·상황에서 오는 오해, 불통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석 부장은 언어는 단지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라고 말한다. '디나라 사원은 공채 5기로 입사한 92년생으로 저와는 나이 차이가 조금, 아니 많이 나요. 그렇지만 세대 차이는 별로 나지 않아요.' 세대 차이, 끈대라는 단어를 잘 쓰고 싶지 않다는 정우석 부장, 우리 모두 생각하는 건 다 어린아이와 같으며 웃어 보인다. 더군다나 이슬람 문화권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업무 중 생길 수 있는 스킨십, 돼지고기를 못 먹는 식습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인지하고 배려하려 노력해요. 사실, 업무의 멘토·멘티라는 관계를 넘어서 사회생활 전반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흔히 말하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디테일하게 제 방법을 주입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른 업종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분야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준 것들은 머지않아 옛것이 돼버리기 쉬워요. 저 또한 예전에 배웠던 것들은 지금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걸요. 지식에도 반감기가 있다고 하듯이 항상 능동적으로 배우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디나라 사원에게도 저만의 방법론을 말해주며 신뢰를 쌓고 있어요. 때론 일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았던 두 사람. 서로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점점 신뢰로 단단해져 가는 길이다.



답을 먼 데서 찾지 말아라! 일을 요령 있게 해라!
일을 스마트하게 하려면 항상 메모해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야근하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차피 하는 일 즐겁게 해보자!

회사생활 재미있어요.

'제 생각에는 소통, 상호이해라는 것은 서로의 상황과 성격에 따라 행동하라는 의미가 담긴 말인 것 같습니다.'라며 디나라 사원은 원익의 핵심가치와 현재 업무를 자신의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박또박 말한다. 'AI와 로봇 공학 분야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배우고 이것을 직무에 직접 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가 재미있어요.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법, AI 모델, 프로그래밍 프레임 워크, 데이터 구조,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즐거움이 묻어나 보였다. 곧이어 회사생활이 어떤지 묻자 '우리 회사는 자율 출퇴근과 야근 안 하는 좋은 회사예요'라며 밝게 웃는다. 그래서 더욱더 회사 목표에 이바지하는 일 잘하는 후배가 되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힌다. 많은 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한국말도 꾸준히 배우고 있다는 디나라 사원은 '한국말 저 가능해요. 말 걸어도 돼요.'라며 즐거운 회사생활을 기대한다. 혹시 오늘 디나라 사원을 마주치게 된다면 파스한 인사말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WONIK**



항상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 아직 디나라 사원은 영어로 말하고 부장님은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편하지만, 언어보다 서로를 향해 신뢰를 쌓아가며 한가지 목표로 함께 가는 이들이 진정한 멘토와 멘티가 아닐까 생각한다.

혼자가 아닌 모두가 즐거워지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축구 처럼 말이죠. 우리가 응원하는 팀, 좋아하는 선수가 녹색 잔디를 누비며 골을 넣고 승리를 얻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짜릿합니다. 승리를 위해 땀 흘리고 열정을 불사르며, 이따금 경이로운 기적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것이 축구입니다. 이 축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감히 덕후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 바로 원익홀딩스 이상훈 과장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즐거운 축구, 함께 하실래요?



원익홀딩스 재경팀 이상훈 과장

소식적에 공 좀 차고 놀던 아이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 남자, 원익홀딩스 재경팀 과장 이상훈입니다. 보통 축구를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릴 적, 다른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처음 본 축구 경기는 아직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섯 살 무렵,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 A조 조별 경기였던 한일전이 방송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김주성,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어 2:0으로 이기며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죠. 정말 우연히 보게 된 경기였고, 가족 중에 같이 본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임팩트를 느꼈을까요? 특히 황선홍 선수의 헤딩골이 너무

멋졌어요. 지금도 그제 경기처럼 또렷하게 기억한다니까요. 난생처음 축구 경기를 TV로 보고 나서부터 집에 있던 온 달력에 축구 경기 일정을 써놨어요. 이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이라, 그야말로 글과 함께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일곱 살 때는 부모님 가게에 온 손님들 앞에서 축구국가대표팀 선수 이름을 다 외워 불러서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놀았고, 장래의 축구선수를 꿈꿨죠. 그런데 엄마만큼 좋아한 축구였지만, 딱 거기까지였나 봐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서 '이 운동선경으로는 축구선수까지는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 아쉬운 일이었죠. 지금 축구를 하면 출중하지는 않아도 못한다는 말을 듣지는 않는 정도예요.

Records.

소속팀
한성가이즈 FC

포지션
DM(Defensive midfielder),
한성가이즈 FC 선수 겸 단장

축구 경력
31 Years
(여섯 살 때 축구를 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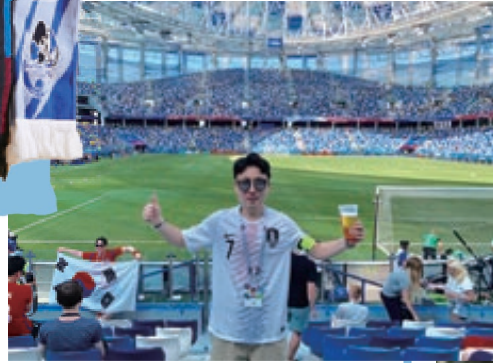
기타 경력
방송 출연
(SBS TV <풋볼 매거진 골>,
스포츠 중계 현장 인터뷰,
축구 전문 채널 기고 등 다수)

좋아하는 선수
세스크 파브레가스
(Cesc Fabregas)
아스널→바르셀로나→
첼시→AS모나코 소속

선호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한국 K리그3
'평택시민축구단'
전 한국 K리그1
'수원삼성'

애장품
2018 러시아 월드컵
국가대표 유니폼,
2018 칠레 친선전
국가 대표 친필 사인 공,
아스널 유니폼, 평택시민
축구단 머플러 등
(기타 유니폼 · 머플러 ·
축구화 · 축구공 등
옷장 전체 칸 용량의
축구용품 보유)

LEE SANG-HUN



축구는 힘이 세다

축구는 전 세계인의 공통분모예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축구로 얘기를 시작하면 대화가 가능해질 정도죠. 일례로 중부유럽을 여행했을 때인데, 슬로바키아를 넘어 체코로 갈 때 화장실이 급해 휴게소를 찾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앞에 사람들이 대기 한 줄이 너무 길었지요. 마침 저는 슬로바키아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앞에 있던 사람들이 동양인인 저를 보고 “슬로바키아를 좋아하나?”며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뜻하지 않게 축구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고, 덕분에 화장실 우선권을 양보받아 위기(웃음)를 넘겼던 기억이 나요.

축구 팬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단연 2002 한일월드컵 당시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시절이죠. 한국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 박지성의 결승 골로 16강 진출이 확정된 그 경기였어요. 이긴 것이 너무 기뻐 동료들과 술 한 잔을 즐기고 있는데, 제가 입고 있던 자원봉사자 유니폼이 탐났는지 어느 아르헨티나 팬이 바꿔입자고 하더군요. 저도 기분이 좋아서 흔쾌히 그러마 했는데, 다음 날 보니 바꾼 유니폼이 짝퉁이었던 거죠(웃음).

제가 가진 희귀 아이템이 몇 개 있는데, 앞서 슬로바키아 유니폼이 그렇고 나이지리아 유니폼도 그중 하나죠. 디자인이 워낙 유니크하고 멋스러워 축구 팬 여부를 막론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저는 3차 판매까지 기다려서 구매에 성공했어요. 전 세계 나이키 홈페이지를 6개월 동안 매일 잠복해 얻어낸 성과죠. 또 하나는 작년에 칠레와의 친선전 때 우리 국가대표팀 선수 전원의 친필 사인이 쓰인 축구공이에요. 우리 팀장님이 축구 덕후인 저를 위해 따로 구해서 선물로 주셨죠! 여하튼 저는 요다음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에 가려고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통장 이름도 ‘카타르 월드컵’이라 지었습니다.



축구를 보면 스물두 명이 하나의 공을 마냥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어요.



세계는 축구공을 따라 돈다

축구를 보면 스물두 명이 하나의 공을 마냥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전략과 전술이 숨어 있어요. 저는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 자체가 축구의 전략과 전술, 분석 방법 등과 유사하다는 생각하곤 해요. 그중에서도 제 역할은 축구 포지션에 비유하자면 수비형 미드필더 정도가 되겠네요. 이 포지션은 관중석에서는 눈에 많이 띄는 역할이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야 하는 임무죠.

수비를 담당하는 포지션은 공격수와는 달리 감독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해요. 경영지원 업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경영 일선의 생산과 R&D, 영업 부서가 경쟁자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든든하게 지원하는 것이 임무죠.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전방의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게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많이 고민해요.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잘 해주는 역할에 충실하자’고 늘 다짐합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눈길을 줘야 할 포지션인 셈입니다.

참, 우리 회사의 축구동호회인 헨섬가이즈 FC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올해 1월 창단해 현재 36명이 정식 회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4전 4패를 거두고 있어도 자부심이 있다면 회사 내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가장 많은 부서에서 가입한 동호회라는 거죠. 이제 축구만 잘하면 돼요(웃음). 우리 목표는 5년 내 FA(대한축구협회)컵에 진출하는 거예요. 5년 뒤에 FA컵에서 다른 전통 있는 팀과 승부를 가르는 모습을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축구로 몇 차례 방송 출연도 했었어요. 경기장에서 인터뷰도 했었고, SBS-TV <풋볼매거진 골!>에서 편파 해설을 콘셉트로 출연하기도 했지요. 축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팀인 아스널(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을 위한 미디어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박지성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최근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의 라이벌로 지목돼 소외되고 폄박을 받는 팀이죠. 그래서 아스널 팬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안티 팬들도 참여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다른 응원 팀으로는 제 고향팀인 평택 시민축구단이 있어요. 재작년에 창단했는데 첫 해에 4부 리그에서 승격해 K리그3에서 활동하고 있죠. 국가대표팀이나 K리그1 팀과 기량 차이는 있지만, 열정과 투지로 뛰는 것은 똑같아서 매 경기가 흥미진진합니다. 남은 다섯 경기에서 승점을 잘 쌓아 꼭 잔류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축구를 하는 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다.” 축구사상 손꼽히는 테크니션인 호나우지뉴의 말인데요, 제가 담담고 있는 헨섬가이즈 FC나 응원하고 있는 평택시민축구단의 선수들을 보면 축구에 대한 애정이 얼마만 한지 느껴져요. 축구를 대하는 순수한 열정, 삶에 대한 진실한 태도도 느껴지고요. 어때요, 함께 축구를 즐기고 싶어지지 않나요? **WONIK**



theme.

소통 - 상호이해

Communication



section II.

찌르르르 쓰르르르
이 짧은 계절의 끝을 모르는 것처럼,
아니 자신의 짧은 생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 문득 매미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면, 아름다운 젊음이 시작되
었구나, 하고 이해해주세요.





여봐라, 씨엠에스랩 납신다!

유쾌한 사람들의 화창한 소풍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은 시간이 있다. 내가 얼마나 잘 웃고 쉽게 들뜰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볼 시간. 씨엠에스랩 식구들에게도 그런 날이 찾아왔다. 푸른 하늘과 풍성한 햇살. 맑은 수채화 같은 날씨 속에 씨엠에스랩의 소풍이 열렸다. 집결지는 남산골 한옥마을. 고풍스러운 정자 앞뒤로 계곡물 흘러가는 소리가 정겹게 흘러들었다. 남다른 장소만큼이나 드레스코드도 특별했다. 오색빛깔 한복을 입고 웅기종기 모여 있는 씨엠에스랩 사우들의 모습이 흡사 대학교 MT를 연상케 했다.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한복의 치맛자락과 두루마기가 눈앞에 너울거렸다.

여전히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이름, 소풍

소풍의 시작은 추억의 빙고게임이 이끌었다. 독특한 점은 빙고판에 적힌 이름의 주인을 찾아서 친필 서명을 받아야 하는 룰이었다. 씨엠에스랩은 원익의 타사보다 근속기간이 비교적 짧은, 신입사원 비율이 높은 터라 서로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귀여운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이른바 '친해지길 바라'라는 목적이 무색할 만큼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쫓아다니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과연, 씨엠에스랩의 소문난 화목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눈으로 가만히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니 한복 차림새로도 저마다의 개성을 느낄 수 있었다. 정강이가 드러나는 감쪽한 스타일의 개량한복을 선택한 직원, 저고리와 치마 가득 금박이 수놓아진 화려한 한복을 입은 직원, 그녀의 잘 쌓아진 머리끝에는 길게 늘어진 땀방울이 명랑하게 흔들렸음은 물론이다. 그런가하면 저승사자(!) 복장으로 해맑게 웃고 있는 남자 직원과 과감한 어우동 차림으로 여장을 선보인 영업부 부장님도 돌보였더라.

오늘은 어린이날 씨엠에스랩 세상!

한바탕 이름 주인 찾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한옥마을 탐방이 이어졌다. 사무실에 앉아만 있던 직원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걷고, 뛰고, 또 옷게 만들 만한 미션이 6명의 조장에게 전달되었다. 마치 장풍을 쓰고 받듯 조원끼리 날아가는 사진 찍기, 외국인 관광객에게 씨엠에스랩을 소개하고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동영상 촬영하기 등 한옥마을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해야만 점수로 인정되는 미션들은 의외로 고난이도였다. 생각보다 드물었던 외국인 출연에 그들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는가하면, 특정 장소에 동시에 도착한 조원들끼리는 교통체증(?)을 겪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미니 폭포 앞에서 모든 조원이 합체를 해 육각형 모양의 별을 만드는 것이 유독 어려워보였다. 여기저기에서 "팔 뻗어! 더 쪽!" "이게 별이 맞긴 한 거야? 누가 좀 봐주세요!"와 같은 목소리가 공통적으로 터져 나왔다. 다른 팀을 견제하며 미션을 연구하다가도 부지런히 셀프 카메라를 찍고, 화기에애한 모습이 영락없이 소풍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행복한 어린이'들 같았다.



CMS LAB

원익의 비타오백, 씨엠에스랩

오후의 햇살처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와중에도 누구 하나 지칠 줄 몰랐다. 그야말로 런닝맨을 방불케 하는 체력소모를 했으니, 잠시 쉬어가야 할 필요도 있을 터. 나무 그늘 아래 돛자리를 펴고 한숨 돌리게 해주는가 싶더니 이날의 하이라이트였던 <CMS 백일장>이 열렸다. 삼행시 짓기로 꾸며진 유쾌한 백일장이었다. 제시어는 각각 '커피잔'과 '한옥마을'이었는데, 다들 "이게 뭐라고" 중얼거리면서도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몰두하는 모습에 몰래 웃음이 새어 나왔다. 이내 회사에 대한 애정과 직장에 대한 애환이 두루 묻어나는 작품 발표가 이어졌다. 사우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두 작품을 이곳에 공개해본다.

이어서 스펀지 화살로 안전무장한 양궁 쏘기와 손 안 대고 훌라후프 통과하기 등의 고전적인, 그러나 우리를 가장 집중시키고 무방비로 웃게 만드는 게임이 진행됐다. 특히나 훌라후프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한복치마의 모양새를 잡아주었던 속치마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허리춤까지 치마를 묶어 올리는 여사우들의 열정에 또 한 번 한바탕 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오후는 쓴살같이 지나가 있었다. 소풍이 끝난 뒤, 한옥마을 언덕을 내려가는 씨엠에스랩의 사우들을 뒷모습에서 어딘가 개운한 기운이 느껴졌다. 봄의 끝자락, 오월의 한복판에서 우리들이 쏟아부은 이 계절의 마지막 열정은 남산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주길 바랐다. **WONIK**



키: 커피 한 잔의 눈물과
피: 피나는 노력으로
잔: 잔잔하게 타고르는 CMS!



한: 한잔 할까?
옥: 옥(오)키!
마: 마셔~
을: 을지로 골뱅이 콜?



"이렇게 좋은 날,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웃으니까 마냥 즐거울 수밖에요."

_마케팅 최유미 상무



"입사 후 오늘 같은 소풍에 참여한 건 처음이에요, 다양한 콘텐츠로 하루를 꾸며주셔서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_셀류전씨 BM팀 오예나 대리



내일은 우리가 챔피언 !

2019년 최후의 승자는 우리! TIPS FC의 해로 만들 것

TIPS FC는 원익아이피에스의 축구 동호회 팀이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 원익아이피에스는 축구 동호회가 두 곳이었다고. 원익아이피에스와 테라세미콘 시절에 각자 결성된 IPS와 TIPS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 이 두 팀은 2주에 한 번씩 모여 축구 경기를 펼친다. 팀을 섞어서 한번 차고, 따로 한번 차는 식이다. 그렇게 교류를 하며 동질감이 생겼고, 한식구가 되어 서로의 경기를 응원해주는 막역한 사이가 됐다.

올해 두 팀의 전적은 IPS FC가 약간 앞서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날 경기에 참가한 TIPS FC의 총원은 20여 명 정도로, 10년 가까이 된 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소중한 팀원들이다. 동호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 최정운 총무팀장은 “같이 모여 운동을 하다 보면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하게 되고, 신입사원도 회사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자랑한다. 타 부서와의 소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의 하나다.

“회사에 빨리 적응하고 싶은 사람, 업무를 수월하게 하고 싶은 사람,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언제나 열려 있는 곳이니까 땀 흘리면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의 축구 동호회 팀 핸섬가이즈 FC는 채 1년이 안 된 새내기다. 동호회장 이상훈 재경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역사는 짧지만 비전과 미션은 확실하다고 자부한다. “회사 소속 축구 동호회이지만 5년 안에 FA(대한축구협회) 컵대회에 참가해 우리 원익홀딩스를 대외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다.



원익홀딩스 - 핸섬가이즈 FC vs.
원익아이피에스 - TIPS FC

미션은 대외적으로 원익홀딩스를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과, 대내적으로 구성원들을 대동단결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일원이 된다면 이러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WONIK



Handsome Guys FC vs. TIPS FC

원익홀딩스 축구팀 '핸섬가이즈 FC'와 원익아이피에스 축구팀 'TIPS FC'가 5월 22일 저녁, 오산의 한 축구장 잔디 위에서 만났다. 서로 근무지와 업무는 달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투지와 열정의 경기를 펼쳤다. 모두가 승리를 위해 공을 차고 달렸던 이 날을 들여다본다.

승리의 꿈을 향해, 서로의 바람을 모아 달린다

오후 7시, 땀이 흐르고 휘슬이 울리자 TIPS FC와 헨섬가이즈 FC 선수들이 공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미 수년간 호흡을 맞춰온 TIPS FC와 새내기 팀 헨섬가이즈 FC의 경기라 실력 차이가 분명 있을 것으로 짐작됐다. 하지만 1쿼터 초반, 아직 몸이 덜 풀린 TIPS FC의 허점을 노리고 헨섬가이즈 FC 선수들의 기습 공격에 경기 양상은 팽팽하게 진행됐다. 저돌적인 헨섬가이즈 FC의 경기력에 놀라 재빨리 전열을 가다듬은 TIPS FC 선수들은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하는 전략으로 주도권을 빼앗아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공방전이 펼쳐진 가운데 1쿼터와 2쿼터가 지날 무렵 TIPS FC 김형동 선수의 골로 기록된 1대 0이란 점수에서 보듯 제법 아슬아슬한 중간 결과가 나왔다.



승리한 팀에게 박수를 쳐주고
패한 팀에게 격려의 악수를
나누는 훈훈한 광경

탄탄한 조직력으로 경기 분위기를 주도한 TIPS FC, 경기력 측면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번뜩이는 모습으로 위협을 가한 헨섬가이즈 FC 모두 경기를 잡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어볼 수 있었다. 두 팀 선수들의 얼굴에는 공을 바라보는 고도의 집중력과 흐르는 땀을 닦아낼 새 없이 중형무진 뛰어다니는 투지가 엿보였다. 그러던 3쿼터가 되자 드디어 헨섬가이즈 FC의 첫 골이 터졌다. 주인공은 박석찬 대리. 첫 골을 축하하는 동료들의 환호성을 뒤로 하고, 아직 부족한 골 수를 따라가기 위해 서둘러 하프라인으로 뛰어가는 그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즈음, 또다시 “골인!” 소리가 들린다. 바로 박석찬 대리가 두 번째 골을 터트린 것. 그리고 후반부로 접어든 경기에 잠시 방심이라도 했을까, 박석찬 대리가 기여이 세 번째 골을 성공시키며 헤트트릭을 작성했다. 모두가 지치지 않고 축구공에 달려드는 지구력이 대단하다. 하지만 두 팀 모두 골 세레모니를 즐길 여유는 많지 않았다. 헨섬가이즈 FC가 세 골을 넣는 사이에 TIPS FC는 3쿼터에만 네 골을



첫 골의 주인공

원익아이피에스 기술개발실
김형동 상무

동료들을 믿고 열심히 뛰었을 뿐인데 첫 골이라니! 매우 기쁩니다. 사실 제 통산 골이 세 골이거든요. 2년 전에 가입했으니까 1년에 한 골씩 넣었네요. 하하! 공을 차는 기술보다는 인간적이고, 착하고 유쾌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울리기 좋은 사람들이지요. 함께 축구하는 날을 고대할 정도예요. 오늘 경기를 잘 풀어나가서 선배 팀으로서 창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잘하자!”

헤트트릭의 주인공



원익홀딩스 ENC본부
박석찬 대리

다 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천부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순전히 제 기량이지요. 아마 이 경기에서는 헤트트릭이 저 뿐일 거예요! 하하, 농담입니다. 팀원들의 어시스트가 아니었다면 한 골도 넣지 못했을 거예요. 어서 빨리 추격해야 할 텐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야속할 뿐입니다. 실력을 닦아 승승장구해서 지역대회에도 출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목표죠. 오늘 이 경기는 원익아이피에스와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멋지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를 뒀 선수들
지켜본 관객들
함께 즐거웠던 한 판의 승부.



작렬시키며 선배 팀의 매서운 맛을 선사했다. 이렇게 박진감 넘쳤던 3쿼터 종료 휘슬이 불었다. 마지막 4쿼터에서는 TIPS FC가 두 골을 더 성공시키며 헨섬가이즈 FC 선수들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두 시간 가까이 펼쳐졌던 두 팀의 뜨거운 경기는 그렇게 7대 3이란 숫자를 남기고 끝났다. 점수 차는 제법 낫지만, 어느 팀이나 아쉬움이 남는 경기는 아니었다. 경기를 뒀 선수들이나 지켜본 관객들이나 즐거웠던 한 판의 승부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외치며 흐르는 땀을 씻고 나오는 동안 어느덧 어둑어둑해진 하늘의 노란 달빛이 이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WONIK**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들의 금요일 밤으로!

금요일 저녁이 시작되기 2시간 전이었다. 주변에 잘 조성된 공원이 무색할 만큼 무성하게 자라난 판교의 빌딩숲은 유난히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마침내 원익 본사에 들어왔을 땐 잠시 피신을 한 기분마저 들었다. 퇴근을 앞둔 원익인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이날은 매달 둘째 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비어라운지 행사가 예정돼 있었다. 4시부터 6시까지 마련된 그들만의 작은 축제로 출근하는 마음부터 남달랐을 하루였으리라.



행사 30분 전, 지하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가자 벌써부터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다.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하는 음식 냄새와 은근히 힘찬(?) 느낌의 포스터와 조명이 곳곳에서 행사의 설렘을 복돋고 있었다. “당신은 초대받았다”라고 쓰인 영어문구가 마주하는 카페테리아의 입구에 서자 마치 프라이빗한 파티에 초대받은 것처럼 슬쩍 미소가 번졌다.

오 프라이데이 나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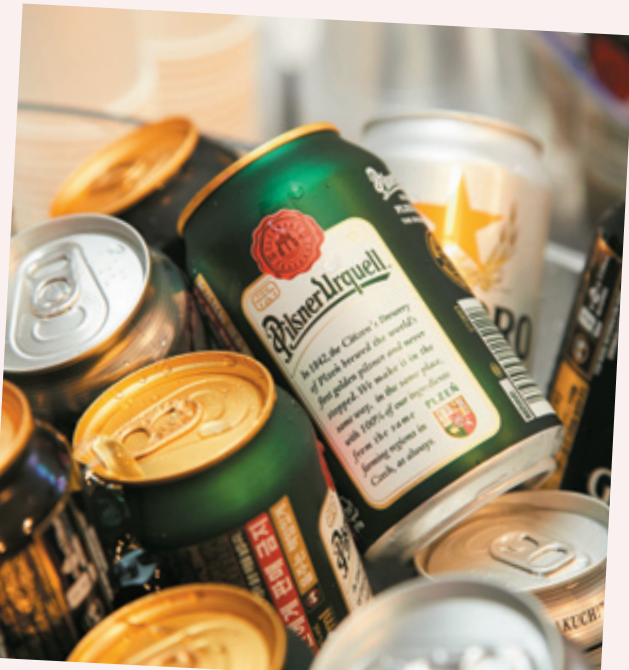
쿵쿵거리는 음악소리가 점점 커지자 복도에서 삼삼오오 사람들이 몰려오는 기운이 느껴졌다. 비어라운지 행사에는 별다른 규칙이 없었다. 그저 맛있는 식사와 음료를 즐기되, 금일 여분의 업무가 없다면 퇴근을 해도 좋은 자유만이 있었다. 이날의 메뉴는 치킨과 피자, 골뱅이소면, 연어샐러드가 메인으로 자리했다. 디저트로는 츄러스가 인기가 좋아 보였다. 얼핏 봐도 맥주 종류는 한 손가락을 훌쩍 뛰어넘었으며, 가벼운 음주도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해 탄산음료가 준비되었음은 물론이었다. 아이스버킷에 들어 있는 와인까지 봤을 때는 살짝 놀랄 정도였다. 단순히 맛보기 식의 자리가 아니라 직원들의 오감을 충족하기 위해 애쓴 노력이 묻어났다.

이내 줄을 지어 음식을 기다리고 푸짐하게 푸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여기저기에서 맥주캔 따는 소리가 넓은 라운지가득 시원하게 울려 퍼졌다. 금요일, 퇴근 전 오후, 그 한 모금이 절실한 시간이었다. 막간을 이용해 동료들과 누린 휴식을 마치고 자리로 올라가 정시퇴근까지 근무를 하려는 이도 간간이 보였다. 아쉽게도 자리에 내려오지 못하는 동료들 위해 음식을 포장해주는 이들의 뒷모습은 아주 다정해보였다.



원익의 비어라운지 행사에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는 않다. 그저 사원들에게 잠시나마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자유와 개인의 시간을 마련해줄 뿐이다. 어떤 피로도나 부담도 느끼지 않고 말이다. 어찌면 회사처럼 매일 만나는 장소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회사가 할 수 있는 배려 중 최고가 아닐까 싶었다.

WONIK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람들의 배가 찰 즈음, 주위를 둘러보았다. 처음보다는 약간 더 들뜨듯한 기분이 느껴졌다. 여전히 맥주캔 따는 소리가 점점 더 잦게 들려오고 있었다. 처음은 조금 지친 듯 보였던 이들의 얼굴

에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미소가 지어졌다. 맛있는 음식의 힘일까? 가벼운 한 잔의 술과 음식, 그리고 이렇게 조금은 긴장을 늦춘 공간에서 함께 할 때 더 좋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 궁금해졌다. 회사 이야기? 연애 이야기? 친구 이야기? 혼자 활동하는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런 무리의 시간이 새삼 그리워졌다. 그중 일찍이 식사를 마치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식탁에 조심스레 찾아가 말을 걸었다. 한 눈에 봐도 평소 친목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원익큐엔씨의 한 부서였다. 그들에게 행사 참여소감을 물었다.

“너무 좋아요.
다른 회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문화잖아요.
오늘 메뉴도 만족스럽고, 사내 합법적 음주니까요(웃음).
또 평일에 시간을 내서 직원들과 모이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러나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유지하면서 화합을 도모하는 기회가 생겨서 좋습니다.”

또 어떤 테이블에는 6년차 선배와 이제 막 입사한지 일주일 된 신입사원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시간의 격차가 느껴지지 않는 다정한 느낌에 격이 자꾸만 눈길이 가는 테이블이었다. 7년 가까이 회사를 다녔어도 딱히 회사에 바랄 게 없다고 고백하는 여유롭고 편안한 표정의 선배와 입사 일주일 만에 비어라운지와 같은 건전하고 캐주얼한 기업문화를 엿볼 수 있어 마냥 즐겁다고 말하는 후배. 두 원익인에게서 오늘의 행사가, 그리고 오늘 날의 원익이 사원들에게 어떤 의미로 새겨지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WONIK**



견고한 동료애와 함께 파티가 무르익고 있었다.
더는 심각할 일이 없다는 듯,
이제 곧 하루가 끝나간다는
안도감이 남아 있었다.
그래, 오늘은 모두가 기다려온 금요일이었다.



뭉쳐라!
원익홀딩스

뚫어라!
반도체 경기



원익홀딩스 시 체육대회 2019

연일 최고기온을 기록하며 이른 여름 날씨를 보이던 5월 17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원익홀딩스 본사인 지체사업장에서 두 번째 체육대회가 열렸다.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는 최근 침체되고 있는 반도체 경기로 인해 저하된 임직원의 사기를 독려하고 전 직원이 단합하여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뜻으로 개최되었다. 지금 그 뜨거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원익홀딩스 상식왕은 나야 나

첫 번째 게임으로 시작된 OX퀴즈. 급한 업무와 출장 인원을 제외하고 130명의 참가 인원이 문제에 따라 옮겨가며 정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인터넷 검색도 허용이 되어 손이 빠른 한 사우는 동료들의 나침반이 역할을 해 눈길을 끌었다. 퀴즈는 원익홀딩스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는 문제와 일반상식 문제가 출제되었다. 아리송한 문제에서는 대거 탈락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나 이재현 대표가 패자 부활전 미션을 통해 많은 사우들을 복귀시켜 박수갈채를 받았다. 수많은 문제를 거쳐 드디어 원익홀딩스의 상식 왕이 탄생했다. 영예의 1등은 품질관리팀 김경현 사원에게 돌아갔고 2등 역시 같은 품질관리팀인 조준호 사원이 수상해 품질관리팀의 브레인파워를 자랑했다. 3등은 공사관리팀 지용수 대리가 차지했다.

일도 게임도 팀워크가 최고

흥미로운 상식 퀴즈를 통해 몸을 푼 130명의 사우들은 총 9개로 조를 나누어 본격적인 팀플레이 게임인 '도전99조'에 돌입했다. 이 게임은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는 개별파트와 모든 조원이 일사불란하게 단결하여야 하는 단체파트가 있어 개인과 단체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 할 수 있다. 남녀 제기차기, 주사위 던지기, 물통 세우기, 신발 던지기, 훌라후프 릴레이, 단체줄넘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정해진 시간 안에 통과하면 성공. 약 30여 분의 연습시간이 주어지고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왔다.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초시계의 카운트가 시작되자 열띤 응원소리와 함께 각자 맡은 파트에서 최선을 다한다. 때론 수월하게, 때론 실수 연발로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누구 하나 편잔을 주는 이 없이 힘을 북돋워 주는 모습에서 원익인의 저력이 느껴졌다. 모든 조원이 늘어서 훌라후프를 통과시키는 훌라후프 릴레이와 단체줄넘기는 협력과 협동이 관건. 정해진 시간을 넘겨 탈락한 조가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에 사우들의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모든 조의 게임이 마무리되고 대망의 1, 2, 3위가 발표되었다. 영예의 1위는 8조, 2위는 5조, 3위는 1조가 각각 차지했다. 1위를 한 8조 조원들에게는 '하늘물빛정원 GIFT카드'가 증정되었다.



WONIK Holdings

체육대회 최고의 피날레

시상이 끝난 후 조별 사진 촬영을 마친 사우들은 식사 장소로 이동하여 즐거운 뒤편이 시간을 가졌다. 오후 내내 정성스럽게 마련된 약 200인분의 바비큐와 뷔페식으로 차려진 음식들은 사우들이 흘린 땀을 보상해 주듯 그 맛이 일품이었다. 어느 정도 포만감이 들 즈음,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는 행운권 추첨이 시작되었다. 에어프라이어 외 다양한 상품을 20명의 직원들이 받아가고 가장 큰 상품이자 모두의 관심사였던 '삼성 FHD TV'의 행운은 구매팀 장은준 부장에게 돌아갔다. 모든 추첨이 끝나고 임직원을 대표하여 마이크를 든 강문모 상무는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상품도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만족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이재현 대표는 "경기가 조금 어려워졌지만 이런 때일수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홀딩스를 위하여!"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여러 게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단결하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에서 원익홀딩스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WONIK



당첨의 행운아
쏟아져라~~



“ 현재 침체된 분위기의 반도체 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 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이 각 부서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부서를 떠나 모든 사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번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임직원들과 뛰어보니 업무적으로만 만났을 때는 직원들의 성향을 잘 몰랐었는데,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몸으로 겪어보니 긍정적이고 활발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전체 임직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부듯합니다.

원익홀딩스 이재현 대표

Mini Interview



우리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gogogo



우리의 진정한
게임은
이제부터다!

뽕치라 원익홀딩스! 뽕치라 반도체경기!
장소 및 일시: 원익홀딩스 지계본사 5월 17일 (금)



자! 즐겁고 행복한
홀딩스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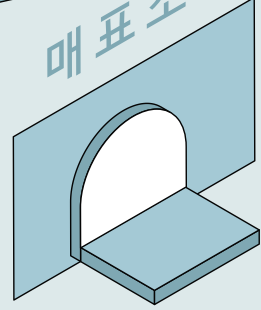
소통 상호 이해

서로 표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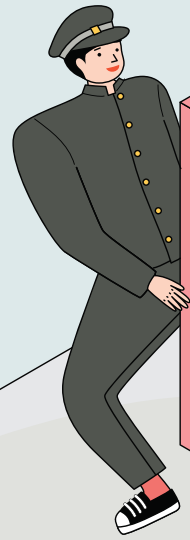


상영중

대표소



핵심 가치
WONIK



‘상호 이해’는 내게 신뢰이다.

상호 이해에는 신뢰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원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원익홀딩스 이재현 대표

‘상호 이해’는 내게 숙제이다.

일을 하면서 상호 이해는 가장 필수적이고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데, 서로 원활한 소통이 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렵게 풀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원익홀딩스 유소연 대리

원익의 ‘소통 상호이해’는 ‘원익의 미래’이다.

소통과 상호이해는 조직에서 꼭 필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러한 두 키워드와 함께라면 원익이 지금보다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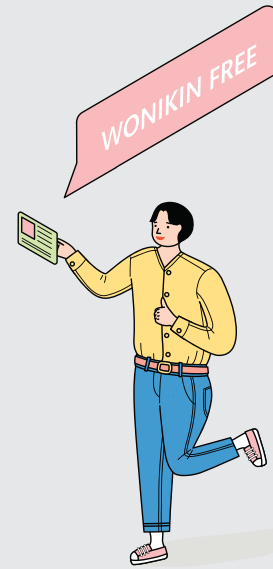
— (주)원익 김상연 사원

소통 상호이해는 역지사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소통이나 상호이해가 이루어 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원익아이피에스 최형섭 전무

NEWTRO MOVIE



소통은 ‘서로에게 관심하자’이다.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 불신입니다. 이러한 불통, 불신을 들어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소통(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 잘되어야 상호이해(서로 깨닫고 받아들임)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 상호이해를 나만의 키워드로 표현하면 “서로에게 관심하자” 소통과 상호이해에 있어 최대의 적은 무관심이라 생각합니다.

— 원익아이피에스 김동현 부장

원익의 소통은 ‘역지사지’이다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성장해야 할 이 시점에, 역지사지 정신을 통해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며 나와 융합될 접점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씨엠에스랩 김혜원 사원

‘상호 이해’는 내게 기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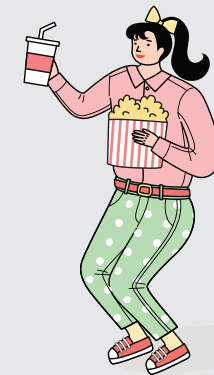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간관계이고 그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상호이해’이기 때문에 상호이해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익홀딩스 권태진 사원

원익의 소통은 ‘솔직함’이다.

솔직한 소통이 가능할 때 비로소 소통의 순기능이 발현된다고 봅니다. 특히 솔직함이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 필요한 능력 같아요. 누구든 소신을 갖고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솔직하면서도 유연한 소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 권영동 부장



원익의 ‘소통 상호이해’는 분위기있는 대화이다.

직급에 관계없이 의견을 피력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소통, 상호이해라고 생각합니다.

— (주)원익 백성현 대리

원익의 상호이해는 ‘수평적’이다.

특히 큐엔씨 같은 경우는 격식이 없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는 기본으로 일할 수 있어요. 당장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에 닥치더라도 동료들 믿고 의지할 수 있죠.

— 원익큐엔씨 노주영 사원



75

원익홀딩스

ENC본부 고객사 환경안전 우수 협력사 수상
더 나은미래를 위해 원익홀딩스 “혁신TF 출범!”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대통령 표창

76

원익아이피에스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서안법인 체육대회
칭찬고래 릴레이 캠페인 & W-Thanks 제도시행
공개학습조직
계층별리더십 교육



78

원익큐엔씨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36.5 Kit 나눔 활동
2019 직원협의회 한마음 워크샵
5월 가족 행사 '매일 May, 해피 Day'



80

원익머트리얼즈

청주시장 원익머트리얼즈 방문
원익머트리얼즈, 가스시설 스마트안전제어 실증
직책자 면접관 양성 교육
'함께하는 우리' 임직원 1박2일 소통 워크샵
원익머트리얼즈 'Shall We Picture?' 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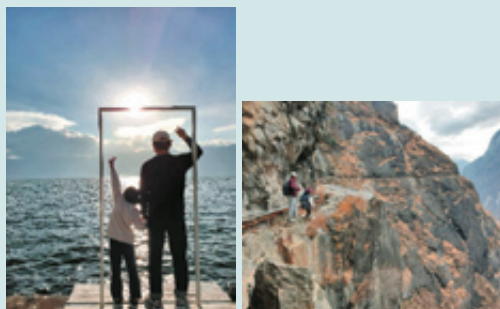
NEWS FOCUS

소통 - 상호 이해° 서로 표현하라
WONIK MAGAZINE 2019 VOL. 59 AUTUMN

83

(주)원익

2019 (주)원익 전사 단합대회 시행
(주)원익 MOU체결



85

씨엠에스랩

가족과 함께한 2019 씨엠에스랩 배낭여행
검색어 1위로 등장한 '셀류전씨'

84

원익큐브

2019년 관리자 리더십 교육 시행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업문화 토론”



86

원익투자파트너스

상반기 FUNDAY 행사 진행

원익홀딩스

01

ENC본부 고객사 환경안전 우수 협력사 수상

원익홀딩스 ENC사업본부가 S사 기흥,화성,평택 총괄 단지장 주관으로 14개 업종 16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안전 혁신 대회에서 건설 배관 시공 분야의 우수협력사로 선정되었다. 무사고 및 제안 우수성을 기준으로 총 5개사(Fab 운영, 설비 PM, 전기, 물류, 건설 배관 시공 부분) ENC본부는 HOOK-UP 업종 대표 우수 협력사로 선정 되어, 우수사례 발표 및 상패를 수상하였다. 수상을 받은 ENC본부 최명진 상무는 “삼성전자 Hook-up 시공사로 선정되어 참여 한지 3여년 만에 경쟁한 회사들을 제치고 안전의 선두에 설 수 있었다는 점은 그동안 당사가 추구한 현장 안전 가치 1) “근로자를 위한 안전” 2) “예방을 기본으로 하는 안전” 마지막으로 3) “혁신적 제도를 동반하는 근로자 안전 인식 전환” 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월 삼성 물산 41개사 협력사 중 안전과 품질 1위 업체로 선정 / 7월은 삼성전자에서도 최우수 업체로 선정 된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수행해 준 이재기팀장이하 환경안전팀과 현장에서 E&C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리자 이하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객의 신뢰를 이루는 근간은 안전과 품질이다. 앞으로 언제든 고객사가 믿고 맡기는 회사, 또한 원익홀딩스라고 하면安心이 되는 회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02

더 나은미래를 위해 원익홀딩스 “혁신TF 출범!”

원익홀딩스에 새로운 TF가 출범하였다. 이름하여 “혁신 TF”, 말그대로 어려운 경영상황속에서 UP10 / DOWN 10를 슬로건으로 경영효율성은 10% 제고시키고, 관리비용은 10%감축하여 건강한 수익성을 확보해 지속 성장을 유지 및 확대하자는 TF이다. 혁신TF의 목표는 1) 내부 프로세스 혁신 활동 전개, 2) 교육 및 경영진단 활동을 통한 투명한 준법외식 내재화, 3)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립이다. 혁신 TF 구성원들은 회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임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회사에서 혁신 대상을 찾을 예정이다. 본 TF에 선정된 최준호대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원,대리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되는 자리인 거 같다”며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제도·방식이나 기준을 바꿔 새롭게 하는 일 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의에 걸맞게 새로운 원익홀딩스의 문화 설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원익홀딩스가 혁신TF활동을 통해서 더 큰 발전을 이뤄 강한 수익성 확보와 지속성장을 이룰 수 있는 원익의 지주사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03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대통령 표창

지난 7월, 충북 세종시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행사에서 원익홀딩스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기업 활동을 평가하여 포상하고 추가 혜택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통령 표창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으뜸기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번 수상에는 원익홀딩스가 그 영광을 누렸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금융지원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150여개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익홀딩스는 ‘17년 ~ ‘18년 총 243명이 입사하였으며, 배관 사업분야에서도 일용직 직접 고용을 추진중이고, 계약직의 정규직화도 적극 시행 중이며, 여성/장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

자리 배려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본 수상의 영광을 받았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평택 지청과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력사 동반성장을 포함한 준법강령 제정 및 공표를 통해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위해서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으뜸기업 선정을 위해서 준비한 인사팀 관계자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신청한 준비했던 으뜸기업에 선정되어서 기쁘다”며 “하지만 막 상 발표가 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지금까지 인사팀에서 해온 일들이 회사를 위해서 잘 한 일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앞으로도 원익홀딩스가 일자리 으뜸기업에 걸맞게 청년 일자리 확대와 소속 구성원의 행복한 근무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추가 소감을 전했다.

원익아이피에스

01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기업 원익아이피에스(대표이사 이현덕, 이재경)가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난 7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이현덕 대표이사가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 총 100곳을 고용증가 분석,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조처, 지방노동관서 현장 실사, 노사단체 및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제도이다. 원익아이피에스는 ▲청년 고용 등 고용창출 우수 ▲일·생활균형 실천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 장기화와 같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R&D 투자를 통해 꾸준한 매출증대를 이루었으며, 그에 따라 최근 2년간 390여명의 청년 인재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주52시간제 시행에 앞장서기 위해 전사 근로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소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는 PC-Screen Off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협력사 행동규범 제정, "Appreciation Day"와 같은 정기 협력사 교류 행사 개최를 통해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이라는 바람직한 기업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익아이피에스 이현덕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고용 창출과 일과 생활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02



서안법인 체육대회

서안법인에서 2019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서안법인 구성원간의 유대감과 팀워크 강화, GWP향상을 목적으로 즐거운 단합 행사를 마련한 것. 날씨는 한창 여름 날씨가 쾌청한 6월 20일 오후 1시부터 5시에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 참가자는 사업부 주재원 7명, 현체인 19명과 T사업부 주재원 1명, 현체인 9명으로 총 36명이다. 합병 이후 한 가족이 된 이들은 모처럼의 행사를 통해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교류의 시간을 갖게 되었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구체적으로 이번 행사는 서안지역에 위치한 체육관을 대관하여 진행되었으며 축구, 농구, 배드민턴, 단합 게임 등 다양한 운동경기와 레크레이션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경기 진행 내내 서안법인 직원들의 응원하는 함성소리와 웃음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평소에 나누기 어려웠던 다양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한 현체인 직원은 회사에서 이런 좋은 행사를 마련하고 지원해줘서 매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단합 행사가 있으면 더욱 업무에 refresh가 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03



칭찬고래 릴레이 캠페인 & W-Thanks 제도시행

원익IPS에 칭찬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인정과 칭찬의 긍정적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칭찬고래 릴레이 캠페인과 W-Thanks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칭찬 고래 릴레이 캠페인은 IPS사내 인트라넷에 칭찬 게시판을 구축하여 임직원들이 상사 자유롭게 칭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게시판을 통해 칭찬 받은 사람에게는 칭찬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즉시 이메일로 전송되며, 3일 내에 다른 고마운 동료에게 칭찬고래 메시지를 남기도록 안내되고 있다. 칭찬하는 사람은 익명, 칭찬받는 사람은 기명으로 게시판에 표시되어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칭찬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오픈 후 8월 2주차까지 일 평균 19건, 총 530건의 칭찬 게시글이 올라왔다. 임직원들은 뜻 밖의 칭찬 메시지를 받으니 기분도 좋고 다른 동료들에게 고마운 점도 찾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입을 모은다. W-Thanks 제도는 원익IPS만의 즉시 포상 제도이다. W는 Wonik, Work, Wonderful의 약자이며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기여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 팀장 및 본부장에게 "칭찬 쿠폰"을 배부하여 문제 해결, 좋은 업무 성과 또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직원에게 바로 포상 한다. 가급적이면 회의, 조회 시간에 다른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칭찬 쿠폰 1장은 인사팀 담당자를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교환하며 기여도에 따라 3장, 5장을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칭찬 쿠폰을 들고 방문하는 직원들의 표정에는 하나 같이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어 W-Thanks 제도가 업무에 활력과 동기부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원익IPS에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04

II. 공개학습조직 프로그램			
* 6월 공개학습조직은 1회차 교육일시, 2회차 내부강사 위주로 운영 - 신형민원 및 감사 사형제와 교육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Session	1차 20일(목) 내부특강 Track	Session	2차 20일(금) 내부특강 Track
13:30 - 15:00	SK에너시스계 향악에는 반도체 환경도 (SK에너시스 공역인사님 참석)	13:30 - 14:20	5-24 열거하면 OKED 사용 동향 (박희영 50분 수업)
15:00 - 15:10	환의자 설명회 & Break Time	14:20 - 14:30	환의자 설명회 & Break Time
15:10 - 16:00	SK에너시스계 배우는 디지털 전략 (SK에너시스 공역인사님 참석)	14:30 - 15:20	Display Toner를 활용한 업무효율성 향상 (사형제님 50분 수업)
16:00 - 16:10	환의자 설명회 & Break Time	15:20 - 15:30	환의자 설명회 & Break Time
16:10 - 17:20	Logic process Technology II* (배경인사님 1시간 10분 수업)	15:30 - 16:20	반도체 장비, 어떤 세로로 만들어야 하는가 (배경인사님 1시간 10분 수업)
17:20 - 17:30	환의자 설명회	16:20 -	환의자 설명회

공개학습조직

원익IPS는 '공개학습조직'이라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부서 구성원끼리 진행하는 역량 향상 활동인 '학습조직'을 전 임직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확대한 형식으로 임직원 전문역량 향상 및 업무필요 역량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월~10월 동안 매월 1~2회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7~9월은 본사에 방문하기 어려운 site근무자를 위해 '찾아가는 학습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 직원을 포함한 총 30여명의 강사가 참여하였으며, 8월 기준 누적 1,245명의 임직원이 교육생으로 참가하여 유익한 역량 향상의 기회를 얻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272%증가한 수치로 공개학습조직에 대한 임직원의 반응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커리큘럼은 반도체 Track 25과목, Display Track 6과목, 전 직원 공통 Track 4과목이다. 직원들은 외부 교육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교육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하며, 여러 과목 중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큰 만족도를 보였다. 금년 10월까지 모든 공개학습조직이 진행되고 나면 우수 강사를 선발하여 소정의 포상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 개발로 임직원 역량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할 예정이다.

원익아이피에스

05



계층별리더십 교육

원익IPS는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계층별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다. 계층별 리더십 교육의 취지는 조직이 기대하는 계층별 올바른 역할을 인식하고 조직 환경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한 직급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 성과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금년에는 각 계층별로 교육 대상자(약 240명)를 선정하였으며, YBM연수원에서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9차수(2일 과정)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세부적으로 사원 과정은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Self Leadership 함양을 목표로 교육이 구성되었다. 특히 요즘 업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Agile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자기 관리, 업무 관리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다음으로 대리 과정은 현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스스로 자기 성장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Professional Leader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시스템적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tool로써 Design Thinking을 배웠다. 마지막으로 과장 과정은 팀워크를 구축하고 갈등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Managerial Leadership이 목표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 갈등관리, 코칭스킬에 대한 강의와 실습이 이어져 조직 내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쌓아갈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게 된 각 계층별 Leader들이 각자의 위치에 더욱 빛을 발하며 원익IPS의 주춧돌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

원익큐엔씨

01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36.5 Kit 나눔 활동

원익큐엔씨는 지난 4월 17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36.5 Kit 나눔 활동을 시행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연계한 본 활동은 저소득층에 비용 부담이 되는 미세먼지 예방용품 및 여성용품 Kit를 제작하여 나눔으로써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사전 공지를 통하여 물품 포장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였으며, 참여인원들은 회사에서 준비한 기본 구성품 외 작은 선물을 추가로 준비해왔다. 업무 일정으로 포장 작업에 참여는 힘들지만 따로 학용품, 캔디 등 선물을 전달해준 직원들도 있었다. 활동 당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본 사업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안내해주었고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날 활동은 포장 및 운반, 정리까지 약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완성된 Kit 박스는 지역 내 5개 기관에서 수령해갔다. 미세먼지 예방용품과 여성용품 Kit 각 36세트로 많은 수량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의미있는 나눔이었기를 바란다.

02



2019 직원협의회 한마음 워크샵

원익큐엔씨는 지난 4월 19일~20일 양일간 하늘물빛정원에서 직원협의회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직원협의회 한마음 워크샵'은 사내 이슈사항에 대한 협의와 노사관계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샵에는 직원협의회 위원 전원과 인사팀 담당자, 경영지원본부장 총 15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특별히 공인노무사를 초청하여 워라밸 문화 만들기, 노사관계 변화 방향,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정책 변화 등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변화된 근무환경에 어떻게 적응해나가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사내 주요 이슈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저녁식사를 하였다. 다음날 오전에는 일찍부터 참가자들에게 기상미션이 주어졌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주제에 맞는 사진 찍어오기, 체육활동 등 합심해서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돈독해진 분위기에서 워크샵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직원협의회 워크샵은 회사를 벗어난 공간에서 보다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앞으로도 노사화합을 위해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03



5월 가족 행사 '매일 May, 해피 Day'

원익큐엔씨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매일 May, 해피 Day' 행사를 실시하였다. 손편지와 그림 두 가지 테마로 진행하였는데,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는 편지쓰기로 임직원들이 가족에게 손편지를 써서 각 캠퍼스 경비실 앞에 비치된 우체통에 넣어두면 회사에서 영화관람권 2매를 동봉하여 집으로 발송해주었다. 편지쓰기에는 총 45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가족에게 진심어린 마음을 전했다. 두 번째는 가족사랑 그리기 대회로, 임직원 자녀들이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응모하면 사내 게시 및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총 24점의 그림이 접수되었으며, 미취학/초등/중고등부로 나누어 그룹웨어 전자투표 및 현장투표를 진행하였다. 투표 결과에 따라 각 부문 최우수/우수/장려상이 결정되었고, 개별적으로 상품을 지급하였다.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상품권 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아쉽게 순위권에 들지 못한 자녀들에게도 전부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기존에 시행해왔던 사진 콘테스트를 '편지'와 '그림'이라는 컨셉으로 변경하고 가족이라는 대상을 포함함으로써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가족과 함께 행복한 5월을 보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림수상작

원익큐엔씨

04



구미공단 50주년 기념 대통령 표창 수상

원익큐엔씨는 지난 9월 18일 구미코에서 개최된 '구미공단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반세기 구미공단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의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본 기념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도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기업인, 근로자, 지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 주력산업 발전기반 구축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시키고자 본 포상을 계획하였으며, 최종 선발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수여식을 이날 진행하였다. 공단 50주년 홍보영상 상영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구미공단발전 유공자 16명에 대한 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원익큐엔씨는 퀴츠웨어의 국산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 확보, 수출 확대, 상생과 소통을 통한 동반 성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권순형 경영지원본부장과 도현수 인사부문장이 참석하여 표창을 수여받았다.

원익머트리얼즈

01



청주시장 원익머트리얼즈 방문

지난 8월 23일 청주시 한범덕 시장이 원익머트리얼즈를 방문 하였다. 금번 청주시장 회사 방문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서도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산업 개척에 도전하는 기업을 격려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확대에 모범이 되고 있는 원익머트리얼즈를 격려하고 기업 애로와 불필요한 규제 등 경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한우성 대표이사는 일본 수출 규제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으며, 청주시장은 수출규제 관련 우리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 파악하여,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지원방안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와 유관기관, 기업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원익머트리얼즈는 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기업으로서 가스시설의 무선제어, 차단장치 개발에 착수할 계획을 공유하고, 청주시의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02



원익머트리얼즈, 가스시설 스마트안전제어 실증

원익머트리얼즈는 지난 7월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산업용 가스의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 무선 제어 차단 장치의 개발과 실증에 들어간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과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규제 제약 없이 혁신성과 신사업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원익머트리얼즈는 가스안전 제어 분야에서 무선 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하여 무선기반 가스안전 제어 산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무선 제어차단 기술을 가스용품에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이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며 IoT,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발돋움 할 예정이다.

03



직책자 면접관 양성 교육

원익머트리얼즈는 금년 직책자 역량강화를 목표로 지난 4월 리더십교육 실시, 6월 리더 소통 스킬 특강에 이어, 팀장과 파트장을 대상으로 면접관 양성 교육을 오창사업장 교육장에서 2일간 실시했다. 금번 교육은 최근 면접의 트렌드를 시작으로 구조화된 역량면접의 프로세스와 인터뷰 진행 및 평가 스킬, 머트리얼즈만의 면접 가이드북을 직접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무 별 필요 역량에 따라 질문지를 개발하고 원익의 핵심가치(자유, 소통, 행복), 공통역량(변화와 혁신, 책임감, 팀워크)에 대한 질문 등 채용 시 면접관으로 참석하는 교육대상자들이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수료한 직원들은 '상반기 자사 리더십교육과 특강, 면접관 양성 등의 맞춤형 교육이 활성화 된데 만족해 하며, 이번 교육으로 추후 채용 시 의사결정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만족감을 표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앞으로도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임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더욱 더 성장해나갈 원익머트리얼즈의 미래가 기대된다.

원익머트리얼즈

04



'함께하는 우리' 임직원 1박2일 소통 워크샵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7주간 원익머트리얼즈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1박2일 국내여행' 컨셉의 함께하는 우리 소통워크샵이 7개조로 진행되었다. 강화, 속초, 경주, 여수, 부산, 대전, 변산 등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직원 개개인이 직접 조를 추천하고 같은 조 동료 임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떠나 여행지에서 다양한 문화체험과 저녁시간을 함께 보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 주 52시간 전환 이후 자율 참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며 이야기 꽃을 피우며 동료애를 느끼며 성숙한 기업문화와 핵심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을 받았으며, 행사 종료 후 실시한 임직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무려 94% 임직원들이 '만족'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소통과 직원간의 교류, 조직활성화의 시간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 및 진행하며 기업문화 개선, 복지증진 및 임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으로, 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기업문화의 원익머트리얼즈를 기대해 본다.

05



원익머트리얼즈 'Shall We Picture?' 사진 촬영

지난 5월, 충북 청주시 오창의 한 사진관에 원익머트리얼즈 품질부서 직원들이 모두 같은 단체복을 입고 나타났다. 바로 원익머트리얼즈만의 이색적이고 뜻 깊은 행사인 '셀위픽쳐' 사진촬영을 위해서다. 각 팀 별로 자유롭고 개성이 넘치는 컨셉을 정하여 사진 촬영을 한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2016년 이후 직원들의 요청과 환영 속에 2번째로 진행되었다. 촬영 전부터 임직원들은 컨셉을 잡기 위해 내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고, 잠시나마 업무 현장에서 벗어나 스튜디오에서 단란한 한 때를 보냈고, 촬영된 사진들은 큰 사이즈의 액자로 인화하여 사내 전시회를 열고, 원익머트리얼즈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 영구 비치하여 전 임직원이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전시 중이다. 원익머트리얼즈는 셀위픽쳐와 같은 이벤트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양방향 소통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계속할 예정이다.



(주)원익

01



2019 (주)원익 전사 단합대회 시행

지난 5월 9일, 월드컵공원 노을캠핑장에서 (주)원익의 전사 단합대회가 진행되었다. 단합대회는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및 임직원 선호를 반영하여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단합대회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의 소통강화 및 리프레쉬였다. 이를 위해 오전에는 평소 함께하기 어려운 타 팀원들과 함께 파크골프 경기를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크골프를 통해 골프가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룰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서로의 스윙을 칭찬하기도 하며 그린 위에서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같은 직급끼리 모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캠핑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기, 해산물, 치킨, 분식 등 조별 기호에 따라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타프를 치고 화덕에 불을 피우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리프레쉬 할 수 있었다. (주)원익은 많은 날씨 속 단합대회를 통해 하반기를 위한 소통을 다지고 활력을 불어 넣었다.



(주)원익

02



(주)원익 MOU체결

지난 6월 25일 원익 판교 사옥에서 (주)원익 백상천 대표, TeraView CEO Don Arnone 등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로 도약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영국 캠브릿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TeraView는 세계 최고 수준의 THz(테라헤르츠) 기술을 보유하고, THz 기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개발하였다. TeraView는 이미 Intel 등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공급 경험이 있으며, 분야에서 높은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양사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THz(테라헤르츠)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양산화에 한층 속도를 높일 뿐 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비즈니스를 확산하기로 하였다.

원익큐브

01



2019년 관리자 리더십 교육 시행

지난 7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시행했다.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리더과정과 팀장 직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리더과정은 각각 진행됐다. 신입리더과정은 중간관리자의 문제해결 및 혁신적 사고를 강화하여 조직 내 이슈에 대한 혁신 프로세스를 적용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사전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생 본인의 혁신 스타일을 진단했다. 비전형, 탐색형, 실험형, 수정형 각각의 혁신스타일 특징을 파악하고 강점과 보완점을 토론했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한 교육참가자는 “현재 우리 회사에 필요한 혁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고위리더과정은 리더의 역할인식과 방향수립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었다. 팀원의 성과와 몰입수준을 관리하는 리더십 Tool과 현장중심의 코칭 방법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됐다. 조별실습 및 토론 위주로 진행되어 교육생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의 코칭 역량강화와 그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원익큐브는 리더십과정 이외에도 CDP 역량개발 교육, 온라인 연수원, 어학교육 등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다방면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업무이외에도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회사차원에서 교육수강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 담당자는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원익큐브 장기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씨엠에스랩

01



가족과 함께한 2019 씨엠에스랩 배낭여행

“40대에 들어서 책임지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허하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발짝 떨어져서 제가 살고 있는 삶을 객관적으로 보고 일상의 소중함을 회복하기 위해 여행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연구소의 유강민 부장이 2019년 배낭여행 공모전에 참여한 이유이다. 많은 임직원들의 공감을 얻어 배낭여행 대상자로 뽑힌 유강민 부장은 ‘사추기(思秋期) 40대의 자아 찾기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지역은 중국의 운남성 지역이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무협소설의 배경인 운남성을 가보는 것이 인생의 버킷리스트였다고 한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딸 아이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가는 여행을 선택했다고 한다. 유강민 부장은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요즘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무겁게 느껴졌고,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을 통해 고민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고, 어차피 답을 내리기 힘든 인생이라면 최선을 다해 잘 걸어보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이 가족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직장생활 하며 가족과 오롯하게 2주를 보내기 힘든데 배낭여행을 통해 딸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씨엠에스랩 임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대해 고민도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겠지만 그럴수록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씨엠에스랩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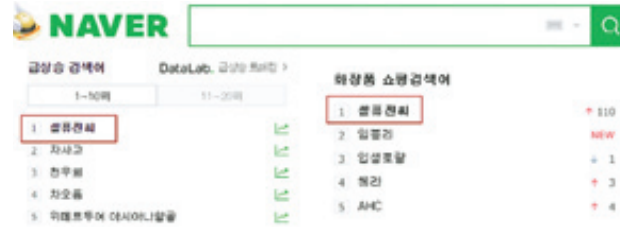
임직원이 함께하는 “기업문화 토론”

원익큐브는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활성화를 위해 기업문화 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문화 토론은 매월 주제를 정하여 사업부별로 진행되며, 각 사업부의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매월 도서1권을 지정하여 토론이 진행됐다. 열두발자국, 굳은생각 깨부수기, 굿라이프 등 지난해 총 8권의 책을 읽고 구성원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에는 미·중무역분쟁, 생산성, 물입, 소통, 창의성 등 원익큐브 조직에 필요한 주제들을 선별하여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토론에 참여하는 원익큐브 임직원 모두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사업팀은 토론 결과물을 취합하여 그룹웨어에 전자 공유하고 있다. 8월에는 개인주의와 팀워크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기업문화 토론 활동이 원익큐브만의 특별하고 새로운 조직활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익큐브 조직문화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원익투자파트너스

02



검색어 1위로 등장한 '셀류전씨'

지난 7월 9일 오후, 포털 사이트 '네이버' 내 화제의 중심은 단연 '셀류전씨'였다. 셀류전씨가 기획한 마케팅 활동 '토스 행운 퀴즈'가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며,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관련 기사가 실시간 양산되면서 화장품(전체) 쇼핑 검색어 1위에도 오르며 약 2시간 동안 '네이버'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셀류전씨는 2016, 2017년 대표 뷰티 앱(APP) 화해 뷰티 어워드 '선크림/로션 부문' 연속 1위를 시작으로 2018년 한국 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부문' 선정, 2019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올해의 자외선 차단제 부문' 1위, 중국 샤오홍수(小红书) 주최 <소비자 주도형 뷰티 어워드> '한국 브랜드' 1위, '선 제품 부문' Top10 입상까지 연일 새로운 기록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단순 '1위' 숫자로서의 의미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 관심사를 파악해 니즈에 맞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접목해 소비자들과 소통에 힘쓴 결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셀' 세이셔널한 기록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이유다.

이진수 대표는 “ '셀류전씨'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01



상반기 FUNDAY 행사 진행

지난 6월 20일 오후 5시 15분부터, 본사 탕비실에서 상반기 FUNDAY 행사를 진행하였다. FUNDAY 행사는 상/하반기로 연간 2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전 직원이 모여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서로에게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이다. 행사의 첫 순서로, 상반기 우수사원 선발을 진행하였다. 우수사원은 전 직원의 투표로 선발되며, 약 일주일간 모든 투표를 완료하였다. 옹호상박 우열을 가릴수 없는 발표 끝에 3명의 직원이 동점을 이루었고 동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었다. 기업투자본부 김유진 사원이 최종 선발이 되었으며 추천내용으로는 “신입직원임에도 투자본부 업무에 빨리 적응하여 지원업무를 효율적이면서 적절하게 수행하였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활발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등의 사유가 발표되었다. 우수사원으로 선발된 김유진 사원은 “우선 우수사원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한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분들과 일할 수 있어서 더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직원분들과 일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도 보이고 저도 직무에 대해 더 욕심과 열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우수사원으로 뽑아 주신 만큼 앞으로 더 성실하게 배우면서 능력있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어 다과시간이 진행되었다. 전 임직원이 모이는 자리가 오랜만이라 그 동안의 안부를 묻고 회포를 풀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하반기에도 파이팅할 것을 다짐하며, 상반기 FUNDAY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 날 행사 스태프인 최선욱 과장은 “앞으로 임직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상호 소통을 위한 즐거운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Thanks for U

함께 만드는 여러분은 원익인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호를 읽고 코멘트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해주세요.

보내실 곳 - 사보팀 (디자인연구소 피플페이지)

people_page@naver.com

보내실 때 - 코너제목/ 이름/ 부서/ 휴대폰번호를 기재해주세요.

모든 콘텐츠 참여는 **휴대폰에서 편리하게 바로** 보내세요. *문자보내기- **전화번호 입력창**에 전화번호 대신 **피플페이지 메일주소**를 넣어주세요. 코너 추천·사연은 기한 없이 보내주세요.

지난호 참여자

스타벅스 상품권 2만원권 <11명>

- 보스vs리더 장빈 (원익메트리얼즈)
박소명-추천
- 명단공개 김국선 (원익홀딩스)
오준
- 멘토링 변지훈 (원익큐브)
황상우
- 그웨이팀 정우석 (원익로보틱스)
김규섭
김길량
- 원익덕후 김태영 (씨엠에스랩)
- 원익월드 박정식 (원익큐브)
- 더 웨이 이재현 대표이사 (원익홀딩스)

일러스트 액자

공감라운지 최화영 (주)원익

사진 액자

원익히어로 그랑프리 (원익아이피에스)
기술개발 우수상 (원익아이피에스)

응모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 최예란 (원익아이피에스)
- 이윤서 (원익아이피에스)
- 김명규 (원익아이피에스)
- 강득심 (원익큐엔씨)
- 정임숙 (원익큐엔씨)
- 권순빈 (씨엠에스랩)

사보 후기

권순빈 (씨엠에스랩)

이번 원익 사보 내용도 알차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정말 재미있게 잘봤습니다!!



16page



23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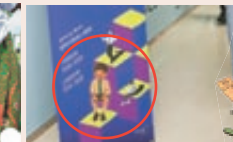
86page



48page



105page



Coloring



심리학계에서는 예전부터 치료에 그림과 색칠 놀이를 활용하였습니다. 색칠을 하는 작고 정밀한 움직임은 대뇌 피질 영역을 자극해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며, 색을 칠하는 것만으로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큰 사회의 구성원으로 속해있는 지금, 자신만의 뚜렷한 성취나 성과를 느끼기가 어려워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흔들리기 쉽다. 이런 심적 부담감을 컬러링으로 채워보세요. 이번호는 판교사옥입니다. 앞으로 제공하는 각 사 드로잉을 자신만의 색감으로 채우며 어렸을 적 동심으로 돌아가 보는건 어떨까요?



채색하여 보내주신 베스트 작품은 다음호에 실어드립니다.
선정된 분께는 스타벅스 음료권 7매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W O N I K I N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리더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팀 내 좋은 영향을 주는 분을 직급에 상관없이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신 분, 추천 받으신 분 스타벅스상품권 각 2만원

BOSS vs LEADER 코너에서 에피소드를 각색하여 구성합니다.

나만의 한정판

나의 리미티드 에디션

신발 컬렉션, LP, 피규어, 한정판OO 등 프로 컬렉터를 찾습니다.

스타벅스상품권 2만원

제보만 해주시면 사보팀에서 취재하여 원역덕후 시즌2에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터치미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관계되는 모든 사진을 코멘트와 보내주세요.

스타벅스상품권 1만원

짧은 코멘트와 구성합니다.

행복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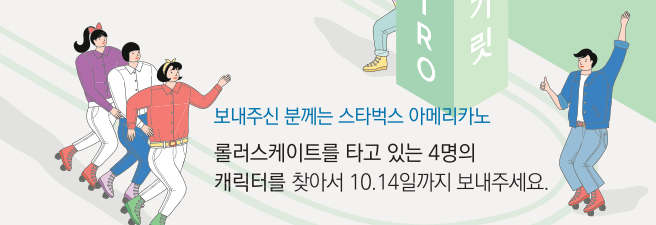
팀워크와 특급칭찬이 온다

점수따고 싶을때, 고생하는 우리팀을 위해 신청해주세요. 사보팀이 찾아갑니다.

간식 or 액티비티(VR 게임방, 방탈출, 실내양궁, 스크린 야구/골프)

숨은 캐릭터를 찾아라

사보 곳곳에 원익인을 응원하는 캐릭터가 숨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4명의 캐릭터를 찾아서 10.14일까지 보내주세요.

사보를 보셨나요?

사보를 보셨다는 인증샷과 코멘트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카라멜마끼아도

10.14일까지 보내주세요.



